

VLCC 250백만달러 리세일 협의설, 200k-CBM LNG 시대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이준범 junebum34@daolfn.com

코멘터리 of 조선

▶ 신조선가 LNG선 하락, LPG선 상승

- ① LNG선이 246.5백만달러로 4주 연속 하락했지만, HD한국조선해양이 주도하는 VLCC는 115.5백만달러로 2주 연속 올랐습니다. 신조선가지수가 186.59P로 2주 연속 올랐습니다.
- ② 중고선가지수도 218P로 1P 올랐는데, VLCC와 수에즈막스 중고선가는 3주 연속 급등했습니다. 3주 동안 VLCC는 157 → 180백만달러로, 수에즈막스 탱커는 108 → 120백만달러로 각각 15%, 11% 올랐고, 신조선가보다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 ③ CMT.Tech는 중국에서 건조 중인 VLCC를 250백만달러에 리세일로 내놓습니다. 앞서 역대 최고 리세일은 200백만달러입니다.

▶ LNG선: 대형화, FSRU 공기 단축

- ④ LR은 이제 200k-CBM LNG선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88개로, 174k-CBM의 97개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었으며, 향후 200k-CBM 건조가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합니다.
- ⑤ Hoegh는 단납기 개조 FSRU 뿐 아니라, 신조 LNG-FSRU 발주도 검토 중이라고 밝힙니다. 신조 인도 기간이 단축되어서 일부 프로젝트에서 타당성이 올라갔다고 설명합니다.
- ⑥ LNG FSRU, FSU 사업을 영위하는 GasEntec는 최근 직접 소유 및 운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삼성중공업과 독자 액화기술인 SENSE 라이선스 도입 MoU를 체결합니다. LNG 액화 국산 기술을 상용화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 컨테이너: 중국과 한국 수주

- ⑦ Maersk가 중국에 18,600-teu 26척 발주를 공식 확인합니다. Hengli에 20+옵션 12척, NTW에 6척(옵션 행사)입니다. Hengli가 탱커를 지나 LNG선과 컨테이너선을 소화할 수 있을지 수년간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단기에 24,000-TEU에 경합 중인 한화오션의 수주 여부를 기다려봅니다.
- ⑧ HJ중공업이 그리스 Navios로부터 10,100-TEU 4척을 추가 수주해서 총 8척 컨선을 건조합니다. 현재 HJ중공업 잔고에는 컨테이너선 17척, LNGBV 1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탱커: 군산조선소 가동 재개

- ⑨ HJ중공업의 형제인 제이오선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LR2 4척, 아프라막스 4척, 수에즈막스 2척으로 10척의 탱커를 수주합니다. 탱커 호황 때문에 군산조선소가 생각보다 빨리 신조를 재개합니다.

▶ HD한국조선해양의 수주

- ⑩ HD현대중공업이 CLdN으로부터 RoRo 2척을 수주합니다.
- ⑪ 클락스에는 HD현대중공업이 Latsco로부터 90k-CBM VLCC 1척을 수주한 것으로 입력됩니다.

모니터링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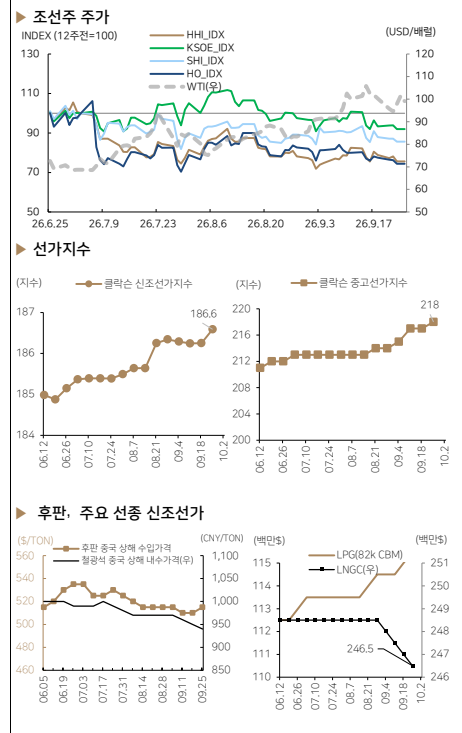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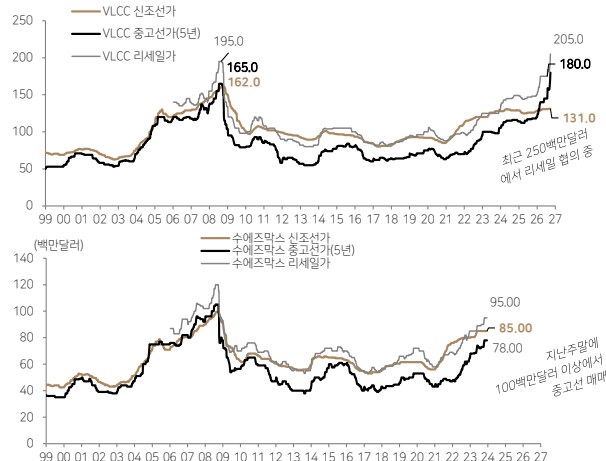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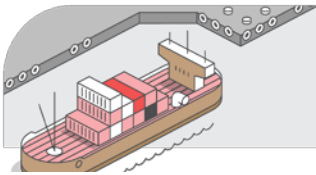


Fig. VLCC는 중고선가 및 리세일가 사상 최대에서 거래 수에즈막스도 초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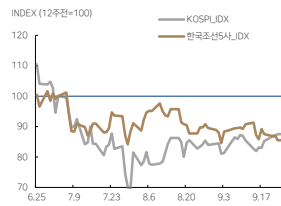
주시 뉴스

✓ 수주, ? 수주설		수주, ? 수주설	
선가 &	09월4주 주시뉴스	수주	09월3주 주시뉴스
	△ 탱커 중고선가 3주 연속 급등. LNG선 4주 연속 하락했지만 VLCC 2주 연속 상승 ▲ VLCC 250백만달러에 리세일 추진 풍문		△ 신조선가는 LNG선 하락, VLCC 상승, 중고선가는 중대형 탱커 2주 연속 급등
그린십	▽ 중국 개조 암모니아 병커링선이 첫 선적 완료		▽ 중국 Hengli Heavy Industry가 자체 발주 방식으로 첫 LNG선 2척 건조 추진. 시장 진입
LNG	▲ GasEntec, 직접 소유 및 운영으로 사업 확장. 삼성중공업 액화 기술 MoU 체결 ▲ Hoegh, LNG-FSRU 신조 적극 검토 ▲ LR, 200k-CBM LNG선이 최적이라고 제안 ▲ 아부다비 Adnoc, 호르무즈 우회 East Coast LNG 추진	?	▲ 삼성중공업, 그리스 Dynagas로부터 LNG선 최대 4척 수주. 2척 수주 공시 ▲ 미국 LNG 수출 프로젝트 Commonwealth LNG, 착공 4개월 만에 5개 train 확장 계획 추진 ▽ Vortexa 전망: LNG 공급이 선대 증가를 2028년말에나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
가스선	△ Dorian LPG, 운임 급등에 따른 중고선가 상승세 속 5번째 VLCC 매각 단행	✓	▲ HD현대중공업, BGN으로부터 VLCC 1척 수주
컨테이너선	✓ ▽ AP Moller-Maersk, 중국에 18.6k-TEU LNG D/F 컨테이너선 26척 신조 발주 공식 확인 ✓ ▽ HJ중공업, 그리스 Navios로부터 10,100-teu 4척 추가 수주	✓	▽ CMA CGM, 양자창에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 12척 발주 협의 ▽ 마스크, 중국 Hengli 20척, NTS에 6척 포스트파나막스 컨테이너선 발주 확인
탱커	✓ ▽ 제이오선중공업, 탱커 10척 수주 ▽ Transpetrol, 중국 Yangzijiang에 신조 발주하며 LR1 PC선 시장 첫 진입	✓	▲ 삼성중공업, Advantage Tankers로부터 수에즈막스 탱커 2척 추가 수주 ✓ ▽ HD현대중공업, Asyad로부터 MR 2척 추가 수주
해양/디펜스	▽ Wison New Energies-Bumi Armada-FPSO Ventures, FLNG 사업 확대를 위해 3자 연합 구축 ▲ Woodside Energy, BP의 호주 Browse 프로젝트 지분 매각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검토 △ Worley, 인니 Inpx Abadi LNG의 해저-파이프라인 2개 패키지 FEED 완료		△ 태국 해양 프로젝트 드라이브 ▲ HD한국조선해양, 인도 타밀나두주에 조선 투자
기타	✓ ▽ HD현대중공업, CLdN으로부터 RoRo 2척 수주		△ HMM은 컨테이너선 외 선종으로 투자 다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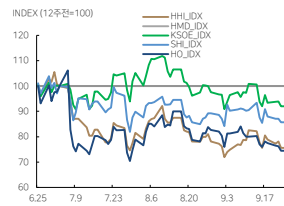


Peer Group 주가

▶ 한국 주식시장 vs. 조선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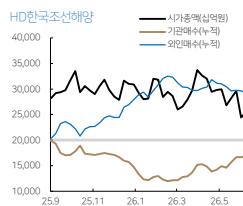


▶ 한국 조선5사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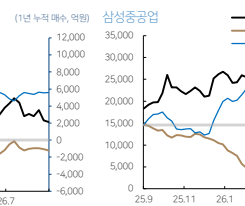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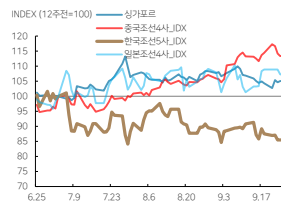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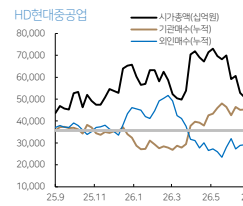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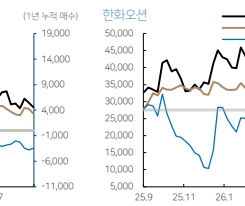
▶ 한/중/일 조선주 주가 비교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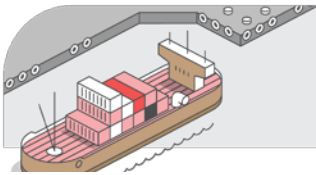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지수	WTI		-1.2%	20.5%	29.4%		51%	9%
	CRB INDEX		-0.9%	4.2%	15.6%		37%	47%
조선사								
한국조선	HD한국조선해양	17,331	1.5%	5.1%	26.2%		-16%	200%
	HD현대중공업	34,091	-4.1%	-5.3%	-33.8%		-10%	264%
	삼성중공업	13,124	-2.5%	1.2%	-25.7%		-3%	158%
	한화오션	17,964	-4.3%	5.4%	-32.9%		-26%	157%
싱가포르	KEPPEL	15,838	2.8%	1.0%	6.3%		29%	72%
	CSSC	42,699	-3.5%	11.7%	5.4%		9%	37%
	CSSC OMEC	4,617	-0.5%	10.7%	1.3%		7%	22%
중국조선	YANGZIJIANG	15,990	0.8%	2%	46.7%		58%	213%
	NAMURA SB	2,159	-3.7%	0.0%	27.1%		44%	462%
	MITSUI ES	2,829	11.3%	0.9%	1.0%		-3%	644%
일본조선	KAWASAKI HI	13,432	0.1%	5%	25.5%		24%	233%
	SUMITOMO HI	4,657	-0.4%	2.0%	1.2%		68%	57%
대만조선	CSBC CORP TAIWAN	779	1.8%	1.0%	1.0%		-17%	-12%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기름들								
RIG	TRANSOCEAN	6,009	-4.6%	-3.9%	1.3%		69%	14%
	SEADRILL	2,850	-4.0%	-2.2%	18.2%		45%	2%
	Valaris	5,624	-3.3%	-3.1%	3.1%		61%	8%
	ODFJELL SE-A SHS	1,089	-1.8%	17.9%	19.2%		7%	35%
IOC+	ExxonMobil	665,558	-1.8%	1.5%	16.5%		37%	7%
	Shell	274,541	1.3%	5.1%	21.5%		30%	9%
	BP	116,145	0.0%	6.8%	10.9%		25%	5%
	TOTALEnergies	207,915	0.8%	6.3%	12.6%		47%	8%
	Chevron	403,946	-2.4%	2.1%	17.8%		28%	3%
	ENI	83,098	0.6%	4.6%	11.3%		57%	8%
	Equinor	101,822	-3.4%	4.4%	27.9%		57%	5%
ENG.	SBM	7,028	-1.6%	5.5%	9.8%		63%	8%
FEED.	Technip FMC	27,840	-1.4%	-6.2%	8.9%		76%	28%
	SAIPEM	9,887	2.0%	-3.0%	-3.1%		74%	2%
	NOV	7,080	-1.0%	-1.8%	6.4%		47%	5%
	MODEC INC	3,934	-2.2%	-6.8%	-6.4%		10%	21%
	WORLEY PARSONS	3,302	-1.9%	-2.7%	-21.1%		-31%	15%

엔진 / 부품								
엔진	WARTSILA	19,630	2.3%	-2.9%	-13.5%		15%	171%
한국엔진	한화엔진	2,925	-7.2%	-0.4%	25.0%		13%	438%
	STX엔진	649	-6.6%	-10.8%	-37.8%		-43%	68%
	HD현대마린엔진	1,224	-6.7%	-7.4%	-28.7%		-38%	416%
기자재	한국카본	771	-3.6%	-14.6%	-33.8%		-37%	61%
	동성화인텍	352	-3.9%	-10.5%	-15.4%		-47%	31%
	세진중공업	417	-3.9%	-7.0%	-34.8%		-50%	93%
	SK오션플랜트	523	-4.7%	-15.5%	-29.4%		-53%	-38%

해운								
해운	MAERSK DC Equity	50,790	2.9%	7.1%	49.1%		62%	10%
	SHIP FINANCE INTL LTD	1,772	-6.2%	6.2%	18.2%		67%	5%
	CLARKSON PLC	2,111	2.0%	3.2%	17.4%		43%	38%
	EURONAV NV	6,055	-4.6%	10.8%	32.2%		98%	0%
	FRONTLINE LTD	10,626	-7.2%	15.8%	16.6%		107%	24%
	NORDIC AMERICAN TANKERS LTD	1,635	-6.4%	18.4%	32.0%		141%	7%
	KNOT OFFSHORE PARTNERS LP	358	-6.5%	-0.9%	2.9%		16%	5%
LPG	BW Offshore	787	-0.2%	3.9%	-10.9%		7%	1%
	DORIAN LPG LTD	2,286	-8.1%	11.5%	35.1%		71%	8%
	EXMAR NV	1,081	-2.5%	0.4%	5.4%		13%	5%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신조 수주(외신, 전자공시 등)

▲ Hoegh, LNG-FSRU 신조 적극 검토

- 아래의 LNG 섹션 참고

▼ AP Moller-Maersk, 중국에 18.6k-TEU LNG D/F 컨테이너선 26척 신조 발주 공식 확인

▲ HJ중공업, 그리스 Navios로부터 10,100-teu 4척 추가 수주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고

▲ 제이오선중공업, 탱커 10척 수주

- 아래의 탱커 섹션 참고

▲ HD현대중공업, CLdN으로부터 RoRo 2척 수주

- 아래의 기타 섹션 참고

▼ Clarksons 신규 수주 입력 업데이트(한국)

@HJSC Yeongdo→Unknown, CONT(10k-TEU) 4척

- 아래의 컨테이너선 섹션 참조

@Samsung HI→Advantage Tankers, TK(157k-DWT) 2척

- 아래의 탱커 섹션 참조

@HD Hyundai (Medium)→CLdN Ro-Ro SA, RORO(6,700-CEU) 2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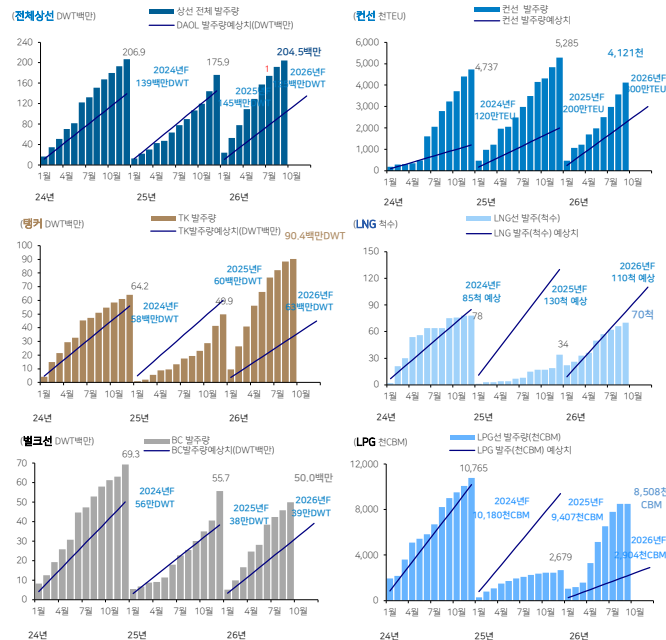
- 아래의 기타 섹션 참조

@HD Hyundai HI (HHI)→Latgas Shipping, LPG(90k-CBM) 1척

- 아직 알려지지 않은 수주건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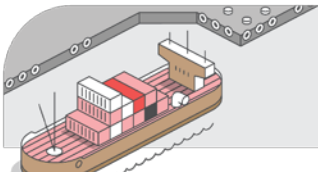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클락슨 신조 발주: 한/중/일

주석: 클락슨 입력 DATA 만 & 해양운 뉴스/공시 기준

	조선사	수주일자	발주처	선종	선형	인도	척수
2026년 09월4주							
대한민국	Samsung HI	26.09.01	유럽	Advantage Tankers	TK	157k DWT	2029 2
	HJSC Yeongdo	26.09.21	Unknown	Unknown	CONT	10k TEU	2028-2029 4
	HD Hyundai HI (HHI)	26.06.22	북미	Latgas Shipping	LPG	90k cu.m.	2029 1
	HD Hyundai (Medium)	26.09.21	유럽	CLdN Ro-Ro SA	RORO	7k Lane m.	2029 2
중국	GSI Nansha	26.09.01	유럽	Advantage Tankers	PTK	50k DWT	2029 4
	Hudong Zhonghua	26.09.16	중국	CULines	CONT	14k TEU	2029 2
	Shanghai Waigaoqiao	26.08.01	유럽	MSC	CONT	21k TEU	2029 3
	CMHI (Jiangsu)	26.09.21	유럽	Jan De Nul Group	OTHERS	#VALUE!	2029 1
중국	Hunan Jinhang SB	26.09.19	중국	Huaguang Yuanhai	CONT	1k TEU	2029 2
	Jiangmen Nanyang	26.09.21	아시아	Jinhui Shipping	BULK	65k DWT	2029 2
	New Times SB	26.07.01	유럽	Akrotiri Tankers Ltd	LPG	93k cu.m.	2030 2
		26.09.01	유럽	Dynacom Tankers Mgmt	PTK	74k DWT	2029 2
중국	Taizhou Kouan SB	26.02.01	중국	Xingtong Shipping	PTK	10k DWT	2027 1
		26.05.01	중국	Jade Union Shpg	BULK	64k DWT	2029-2030 6
		26.07.01	중국	Shishi Dingsheng	BULK	13k DWT	2027 1
		26.06.03	중국	Xingtong Shipping	PTK	64k DWT	2030 3
중국	Taizhou Maple Leaf	26.07.31	유럽	Atlanship SA	CONT	3k TEU	2029-2030 2
	Taizhou Sanfu	26.09.03	유럽	CIMC Raffles	PCTC	7k Cars	2030 2
	Zhejiang Donghong	26.04.01	일본	Unknown Japanese	BULK	14k DWT	2027 2
	Zhejiang Kailing	26.05.18	중국	Zhuohai Port Tug	OFF-기타	5k HP	2027 1
중국	Hunhai Jianglong	26.08.31	중국	Yantai New Voyage	FERRY		2028 2
	ZPMC Qidong Marine	26.09.17	중국	Henghui Shipping	OFF-SUPP	38k DWT	2028 2
	Zhejiang Zhenxing	26.01.01	Unknown	Unknown	FERRY	#VALUE!	2027-2028 3
	Hexing Shipyard	26.01.01	중국	Zhoushan Zhongguan	해양설치	#VALUE!	2028 1
중국	Lianyungang Wuzhou	26.01.01	Unknown	Unknown	BULK	76k DWT	2028 1
	Zhoushan Ningsheng	26.09.01	중국	YZJ Maritime	PTK	29k DWT	2028-2029 4
	Taizhou Fangxing SY	26.01.01	Unknown	Unknown	FERRY	#VALUE!	2027 2
	Fujian Funing SB	26.06.01	Unknown	Unknown	OFF-SUPP	#VALUE!	2028 5
중국	Zhijiang Hongjiu SY	26.01.01	Unknown	Unknown	BULK	5k DWT	2027 1
	Nantong Xiangyu SOE	26.08.01	유럽	Ince Denizcilik	BULK	64k DWT	2029-2030 3
	Hengli SB (Dalian)	26.02.12	유럽	Cardiff Marine	TK	306k DWT	2028 2
		26.08.01	유럽	Alpha Gas	LPG	93k cu.m.	2029 2
중국	New Jiangzhou SB	26.08.19	중국	Hengli Shipping	LNG	175k cu.m.	2029 2
	Jiangsu Zhenda	26.06.03	중국	Xingtong Shipping	PTK	13k DWT	2028 2
	CMi (Weihai)	26.01.01	Unknown	Unknown	PTK	10k DWT	2028 2
	SOHO I&T SB	26.09.23	Unknown	Stena RoRo AB	FERRY		2030 2
중국		26.05.01	중국	Zheshang Leasing	BULK	64k DWT	2028-2029 2
				HT Xinhang Leasing	BULK	64k DWT	2028-2029 3
		26.08.01	중국	BG Shipping	BULK	64k DWT	2028 4
		26.09.01	중국	BG Shipping	BULK	64k DWT	2028-2029 2
중국		26.09.21	유럽	Dassler Anlage-und	BULK	65k DWT	2029 2
		26.09.17	유럽	Augusta Due S.r.l.	PTK	41k DWT	2028-2029 3
	Anhui P&S Sealand	26.09.18	유럽	Maersk	CONT	19k TEU	2029-2030 20
	Unknown Yard China	26.08.30	유럽	Maersk	CONT	19k TEU	2030-2031 6
중국	Lixin Ship	26.06.01	Unknown	Unknown	BULK	5k DWT	2028 2
	Wuhu (Nantong)	26.09.01	유럽	Union Maritime	BULK	211k DWT	2029 2
	Yangzi Hongyuan SB	26.03.10	중국	JJ Shipping	CONT	2k TEU	2028-2029 4
		26.06.23	중국	JJ Shipping	CONT	2k TEU	2029 4
중국	Guangji Xinneng SB	26.09.19	유럽	Marfret	CONT	0k TEU	2028 2
	Wuxue Changjiang	26.01.01	중국	Hefei Longxuan Shpg	CONT	1k TEU	2027 2
	Xiandai Shipbuilding	26.01.01	Unknown	Unknown	OFF-기타	3k DWT	2027 2
	Imabari SB (Imabari)	26.09.01	Unknown	Unknown	BULK	40k DWT	2029 1
일본	Imabari SB Saijo	26.01.01	Unknown	Unknown	BULK	181k DWT	2029 2
	Minaminippon (Ozai)	26.01.01	Unknown	Unknown	BULK	64k DWT	2029-2030 5
	Fukuoka SB (Fukuoka)	26.09.01	유럽	Union Maritime	PTK	20k DWT	2028-2029 2



선가, 실적, 생산능력

▲ 탱커 중고선가 3주 연속 급등, LNG선 4주 연속 하락했지만 VLGC 2주 연속 상승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이 3주 연속, LNG선이 246.5백만달러로 4주 연속하락했지만, 케이프벌크선이 올랐고 VLGC가 115.5백만달러로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신조선가지수는 186.59P(+0.34P)로 2주 연속 상승
중고선가는 VLCC와 수에즈막스가 또 각각 180백만달러(+21백만달러), 120백만달러(+4백만달러)로 급등하면서 중고선가지수가 218P로 1P 상승

▲ VLCC 250백만달러에 리세일 추진 풍문

CMB.Tech는 중국 Qingdao Beihai 건조 중인 322k-DWT Ammonia-ready VLCC 4척(2026~2027년)을 총 1십억달러(적당 250백만달러)에 일괄 매각 추진 소문
역대 최고 리세일가(200백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나, 시장 및 Pareto Securities는 다소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평가
운항 중인 3척(Eburones, Menapii, Morini)의 가치는 적당 194~203백만달러이며 Menapii호는 ExxonMobil과 1년 정기 용선 중임
유력 매수 주체로는 UAE 기반 Onex DMCC가 거론됨
적당 110~115백만달러에 발주된 선박으로 매각 성사 시 주당 2달러 장부가 이익 발생 및 LTV 개선(49%→42%)
CMB.Tech는 올해 시노코(Sinokor)에 VLCC 8척 및 Donoussa호(123백만달러) 매각 합의
한편 이달 초 중동 측시 인도 프리미엄이 반영된 2026년 건조 스크러버 장착 VLCC 1척이 역대 최고가인 200백만달러에 리세일 거래 보고된 바 있음. Dynacom-SOMO 관련 거래
현재 중동 걸프만 선적 VLCC 스팟 운임은 1,250,000달러/일로 강세 유지 중임
⇒ 놀랍습니다.

▲ Sinokor Maritime, Bahri 출신 노후 VLCC 매각으로 34백만달러 차익 실현

올해 80척 이상의 VLCC를 매입했던 한국 Sinokor Maritime이 매도세로 전환
319k-DWT Rain Cubic(2008년 건조)을 UAE 매수자에게 92백만~93백만달러에 매각
VesselsValue 기준 해당 선박의 평가 가치는 109백만달러 수준
올해 2월 사우디 Bahri로부터 59백만달러에 매입했던 선박으로, 약 34백만달러의 매매 차익을 실현
Sinokor Maritime은 현재 약 86척의 VLCC를 운항 중이며, 10척의 추가 인도 대기 잔고를 보유
신규 확보 선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중동 산유국의 STS 서를 운송에 핵심 역할을 수행 중
다만 8월 말 현재 상태의 321k-DWT Senegal Prosperity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로켓 공격을 받아 침수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 노출
걸프만 내부 VLCC 운임은 800,000달러/일에 육박하는 초강세를 기록 중임
Gibsons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의 한척 대기 선박 급증으로 공급망 차질에 따른 선박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함
⇒ 잘하는군요.

▲ Asyad Shipping, 호황인 매매 시장 활용해 노후 VLCC 2척 및 PC선 1척 매각

오만 Asyad Shipping이 중고선 시장 강세를 활용해 노후 탱커 3척 매각 단행
2011년 건조 VLCC 2척(Samail, Seeb)을 총 160.2백만달러에 매각해 75.2백만달러 차익 실현 전망
해당 VLCC는 각각 2026년 10~11월, 2027년 1월까지 운항을 지속한 후 매수자에게 순차 인도 예정
최고령 MR PC선 Al Amerat(2008년 건조) 역시 17.5백만달러에 매각 완료
지난주 HD현대중공업에 PC선 2척을 추가 발주해 해당 야드 PC선 잔고는 총 8척으로 확대
한화오션에도 신조 VLCC 6척의 수주 잔고 보유 중
⇒ 한국에 교세 발주. 감사합니다!

▲ BGN, 수에즈막스 탱커 연속 인수, 10년선 98백만달러로 사상 최고가 경신

에너지 트레이더이자 선주사인 BGN International, 중동 원유 수출 경쟁 속 수에즈막스 탱커 연속 인수하며 투자 확대
2016년 한국 건조 158.6k-DWT Speedway호를 98백만~99백만달러에 매입 완료
매각가는 선정 10년 수에즈막스 기준 역대 최고가 수준이며, Clarksons 기준 등급 추정 가치도 사상 최고치 경신
매도자인 그리스 CM Lemos는 선대 교체(fleet-renewal) 전략의 일환으로 매각 단행
BGN은 지난 7월 157.5k-DWT GH Holiday호(현 Bella First호, 80백만달러 이상) 인수로 탱커 시장에 데뷔함
선가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3번째 수에즈막스 탱커 인수를 위한 초기 협상 진행 중
주력인 가스선 분야도 병행 투자 중이며, Iino Lines 장기 용선 기반 VLGC 신조 계약 체결
대형 가스선 40척을 운용하는 미국산 LPG 주요 취급 선사로서 2027년 LNG선 2척, 2028년 LPG선 10척 추가 확보 목표

▲ 한화오션 건조 수에즈막스 탱커(14살) 90~91백만달러에 매각

그리스 Almi Tankers, 한화오션 건조 157.8k-DWT 수에즈막스 Almi Galaxy호(2012년 건조)를 최소 90백만~91백만달러에 매각하며 선정 신규 벤치마크 형성
내년 초 정기검사를 앞두고 있으며 평가 가치(80백만달러 미만)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Almi Tankers 기준 4년 만의 첫 탱커 매각임
스페인 Ibaizabal도 한국 건조 159.4k-DWT Montestena호(2012년 건조)를 85백만~87백만달러에 매각함
VLCC 가용 매출 감소 및 호르무즈 해협 운항 수요로 인해 수에즈막스로 거래 열기 확산
중동 외 그리스 선주들도 매수에 적극적이며 Almi Galaxy호의 매수 주체도 그리스계로 관측
그리스 Evaland Shipping은 CMB.Tech의 165k-DWT Stella호(2011년 건조)를 최소 80백만달러에 인수 후 Trafigura와 120,000달러/일로 1년 용선 계약 체결
2001년 건조 노후선인 150.7k-DWT Graff호도 그리스 매수자에게 43백만~45백만달러에 거래되며 노후 선박까지 매수세 확산

▲ Exmar, 대한조선 건조 수에즈막스 106백만달러에 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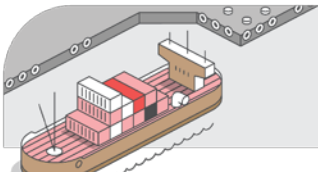
벨기에 Exmar, 탱커 선가 급등세를 활용해 작년 대한조선에 발주한 157k-DWT 수에즈막스 4척 중 1척(Hull No 5112, 스크러버 장착, 내년 인도)을 리세일 매각 합의
매수 주체는 그리스 Evangelos Marinakis의 Capital Group이며 매각가는 106백만달러 소폭 상회 수준임
발주 당시 적당 약 85백만달러였던 선박으로 Exmar는 1년 만에 대규모 차익 실현 및 선주들의 성공적 자산 플레이 흐름 입증
수에즈막스 선가 및 용선료 밸리가 지속되며 Almi Galaxy호 90백만~91백만달러 매각, Stella호(120,000달러/일) 및 Almi Odyssey호(125,000달러/일) 1년 용선 성약 체결됨
Capital Group은 최근 5개월간 New Times 및 HD현대상호로부터 수에즈막스 4척을 인도받았으며, 지난 3년간 4.2십억달러 규모(37척)의 탱커 발주를 통해 선대 확장세 지속

▲ 선가 상승세 지속 속 잠금상선(Sinokor), 선정 15~17년 노후 중고 VLCC 선박 매출 확보

조건 부합 선박에 140백만~150백만달러 제시 중이며 인도 목표 시점은 11~12월로 설정
즉시 인도 가능한 VLCC 리세일 호가가 200백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추진
탱커 매입 파트너인 MSC는 319.471k-DWT VLCC Atherina호(2011년 건조)를 143백만달러(일부 146백만달러)에 매입함
해당 선박은 현대중공업이 건조·경매 매입(45백만달러) 후 광탄·원유 겸용선에서 VLCC로 개조했던 선박임
2018년 Transmed Shipping이 36백만달러에 매입했던 선박으로, 8년 만에 가치가 100백만달러 이상 급등함

▲ Trafigura, LR1 높은 가격에 매각. 차익 실현

Trafigura, 선가 급등세를 활용해 74k-DWT LR1 PC선 2척(Marlin Hestia호, Marlin Hera호, 2017년 한국 건조) 매각
매각가는 적당 약 49백만달러로 추정되며, 2021년 매입가(적당 약 30백만달러) 대비 총 38백만달러 잠재 차익 확보함
해당 선박들은 중국 Bank of Communications의 리스 및 나용선 후 재용선 구조로 금융 조달된 상태임
중동 분쟁 여파로 LR1 스팟 운임은 중동·일본행 171,732달러/일, 북유럽행 246,934달러/일 등 사상 최고 수준 기록 중
Trafigura는 노후 LR1 4척을 포함해 26척의 운항 선대와 18척의 신조선 잔고를 보유함
이번 매각은 최신 VLCC 14척 운영을 위해 설립한 Volare Shipping의 오솔로 500백만달러 규모 IPO 상장 시점에 단행됨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그린십

▲ Yara, 노르웨이 벙커링 개발사 Azane과 암모니아 오프테이크 계약 체결

노르웨이 Azane Fuel Solutions가 자국 Yara와 암모니아 오프테이크 계약 체결. 세부 물량 및 계약 금액은 비공개
Equinor 등 고객사에 암모니아 연료 공급 기반 마련, 4분기 공급 개시 예정
Equinor는 Eidesvik의 암모니아 개조 해양작업지원선 Viking Energy 프로젝트 참여 중
Azane는 노르웨이 Enova로부터 442백만크로네(46.9백만달러) 보조금 확보
Azane은 2021년 합작 설립되었으며 Yara 및 Navigator Gas가 각각 지분 14.5% 보유 중

▲ 한화오션, LNG에서 암모니아로 전환 가능한 연료 탱크 및 공급 시스템에 대해 ABS 기본승인 획득

한화오션이 미국 ABS로부터 LNG에서 암모니아로 전환 가능한 선박용 연료 탱크 및 연료 가스 공급 시스템 AIP를 획득함
방콕 Gastech 행사에서 공식 발표되었으며, 선급과 진행 중인 암모니아 연료 도입 프로젝트의 일환
가스터빈 구동 전기 추진 LNG선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LNG와 암모니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유연성을 제공
ABS 수석 부사장 Gareth Burton은 규제 변화 속에서 탱크 교체 없이 연료 유연성을 확보한 중요한 설계라고 평가
한화오션 CTO 손영창 부사장은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 선주들에게 실용적인 전환 경로와 장기적 경쟁력을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설명

▼ 중국의 개조 암모니아 벙커링선이 첫 첫선 완료

중국 LPG선이 암모니아 벙커링선으로 개조되어 최초로 타 선박용 그린 암모니아 연료를 선적함
대상 선박은 스웨덴 FKAB 설계의 5.54k-CBM Sheng Hang Yong Le호(2024년 건조)로, 난징 Shenghang Shipping 소유
이달 초 개조 완료 후 해외 선박 공급용 그린 암모니아 1.0k-CBM을 선적
실제 투입된 첫 전용 암모니아 벙커링선 중 하나이며, LPG 및 케미컬(VCM) 운송 능력도 유지
개조 작업은 1개월 미만 소요되었고 Gloryholder LGM01 화물 처리 장비, FKAB가 기술 도면을 공급. 중국선급(CCS)으로부터 암모니아 벙커링 선급 인증 획득
한편 미국 선급 ABS는 HD현대조선해양·HD현대중공업 설계의 22k-CBM 암모니아 벙커링선에 AIP 승인
ABS는 무탄소 연료 전환을 위한 벙커링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한 벙커링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
⇄ 암모니아 벙커링선 시장도 경쟁을 시작합니다.

▶ LNGc

▲ GasEntec, 직접 소유 및 운영으로 사업 확장. 삼성중공업 액화 기술 MoU 체결

가스 기술 전문 기업 GasEntec, 사업 영역을 확장해 LNG선·터미널 자산의 직접 소유 및 운영사로 전환 추진
FSRU 개조 프로젝트를 위한 중고 LNG선 인수를 적극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FSRU·FSU·육상 터미널 직접 소유 및 운영 계획
NFE 출신 소형 LNG선 1척을 용선 확보해 온두라스 프로젝트에 조만간 투입 예정
FSRU 시장은 2022년 유럽의 선박 흡수 이후 구조적 공급 부족 상태에 직면
LNG선의 FSRU 개조 기간은 노후선 21개월, 최신 디젤-전기 추진선 약 15개월 소요
업스트림 확장을 위해 삼성중공업과 50,000톤/1 MTPA 규모 소형 액화 기술 고도화 MoU 체결
삼성중공업 독자 액화 기술인 SENSE 라이선스를 최초 상업 도입하는 사례
12~15개월 내 도입 가능한 FSU+육상 재기화 결합 모델 및 125 MMscfd 표준화 모듈 개발 집중
온두라스에 25 MMscfd급 컨테이너형 재기화 설비 'RegasTainer' 1기 배치 완료, 수주일 내 가동 예정
지배구조는 미국 투자자 그룹(Groupe Mimran 우원) 산하이나, 경영 및 핵심 기술 기반은 한국에 위치함

▲ Hoegh, LNG-FSRU 신조 적극 검토

노르웨이 Hoegh Evi, 일반 개조와 함께 모든 프로젝트 대상 FSRU 신조선 발주 방안 적극 검토 중임
신조선 인도 기간 단축으로 추진 중인 일부 프로젝트의 신조 타당성 상층
VTTI 공동 개발 네덜란드 프로젝트는 내년 FID 거쳐 2030년 인도 FSRU 신조선 도입 가능성 비교 검토
투기적 개조는 배제하며, 신조선가와 완전 개조 간 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나 개조의 최대 장점은 납기 일정에 있음
소형 스티터빈,선부터 디젤-전기 추진선까지 개조 추진 중이며, 싱가포르에서 160k-CBM Hoegh Gandria호(2013년 건조) FSRU 개조 마무리 단계 돌입
장남기 기자재 사전 발주로 18개월 만에 개조 완료했으며, 10월 말 Seatrium 출항 후 연해 이집트 EGAS 10년 용선 계약 투입 예정
시장 내 잠재적 개조 대상은 스티터빈선 87척, D/F-TFDE선 54척 등 140척 이상이나
140k-CBM급 크기 및 기술적 제약으로 실제 전환 가능 선박은 제한적
입찰용 선박 선확보를 위해 Equinor 20년 용선 종료 후 반선된 스티터빈선 Arctic Lady호 및 Arctic Princess호(2006년 건조, 147k-CBM)를 계류 후 개조 후보로 검토 중
FSRU는 단순 백업에서 에너지 안보 핵심 전략 자산으로 위상 격상되었으며, 신규 LNG 생산 물량 유입으로 지속 성장 전망

▲ LR, 200k-CBM LNG선이 최적이라고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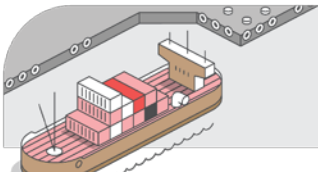
Lloyd's Register(LR), 글로벌 터미널 수용성을 고려할 때 선대 갱신을 추진하는 선주 및 운항사에게 200k-CBM LNG선이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제시
프랑스 GTT 의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88개 LNG 터미널이 200k-CBM 선박 수용 가능하여 업계 표준인 174k-CBM 수용 터미널 수(97개)와 유사한 수준임
접근 가능 네트워크에 주요 거래 허브 다수가 포함되어 핵심 항로 투입 시 터미널 접근성 제약은 제한적
현재 Dynagas 및 Venture Global이 계약한 200k-CBM 13척이 운항 중이며, 신조 잔고는 15척에 달함
터미널 호환성의 핵심 요소는 선폭, 출수 및 배수량이며, 신규 3-화물창과 기존 4-화물창 설계 간 호환성 차이는 실질적으로 없음
대형 선형 도입 시 터미널 인프라 부담 없이 적재량 및 운송 효율 개선을 통한 경제적 이점 확보 가능
LR 모델링 분석 결과 30년 운항 기준 대표 항로 운송비 절감 등 선주에게 약 85.5백만달러의 잠재 편익 발생
운항 속도 저하 속에서 효율성, 선대 갱신, 운항 유연성 균형을 모색함에 따라 대형 선형의 중요성 지속 확대 전망
⇄ 따라오는 중국을 염두에 둘때,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잘 할테니깐요.

▲ 아부다비 Adnoc, 호르무즈 우회 East Coast LNG 추진

Adnoc,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대응해 우회 LNG 수출 터미널 설계를 맡을 3개 입찰 컨소시엄 선정
지난 3월 중동 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폐쇄 및 Adnoc Gas 생산 감축이 추진 배경임
오만만 푸자이라에 4 MTPA 규모 액화 설비를 건설하는 'East Coast LNG' 프로젝트 추진
병렬 FEED 후 EPC 연계 예정이며 Saipem-L&T, Technip Energies-JGC, Technimont 단독 등 3개 그룹에 LOI 발급. 총 공사비는 5십억달러 이상으로 추산
사업 범위는 액화 설비, Habshan 가스전 연결 신규 파이프라인 및 압축기 설치 포함
기존 Das Island(6 MTPA)와 건설 중인 Ruwais LNG(9.6 MTPA)는 모두 호르무즈 경유가 불가피한 한계 보유
신규 푸자이라 터미널은 아시아·유럽 등 핵심 시장 대상 UAE 장기 가스 수출 역량 확대 전망
Rystad Energy에 따르면 UAE와 Adnoc은 호르무즈 해협 우회 전략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
이런 가스 우회로는 기존 1.5m bpd 원유 송유관 및 석유제품 파이프라인과 연계 예정
분쟁 요충지 외곽에서 선적 인도를 보장하는 공급자가 경쟁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분석됨
[06월4주] ▲ ADNOC은 호르무즈 해협 우회 목적의 'East Coast LNG' 입찰 개시

▲ Gail 자회사 Konkan LNG, 서부 해안 Dabhol LNG 터미널 확장 공사에 3개 사 입찰 참여

Gail 자회사 Konkan LNG가 Dabhol 터미널 용량을 기존 5MTPA에서 6.3MTPA로 확장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및 PMC 입찰 개시함
입찰에는 Technip Energies India, Engineers India, Rina Consulting 등 최소 3개 사가 기술 제안서 제출 완료함
약 2년 소요될 1단계 확장 시 연간 최대 100척 처리 가능하며, 향후 12.6MTPA까지 늘리는 2차 확장도 검토 중임
방파제 완공으로 사계절 접안 체제를 구축했으며, 인도의 가스 비중 확대 기조에 따라 국내 재가파 용량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 여러 국가들이 LNG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 BW LNG는 FSRU 1기 투기적 개조

BW LNG, TFDE 추진 LNG선 1척을 지정해 장남기 기자재를 발주하며 FSRU 투기적 개조 착수
개조 대상 선박으로는 174k-CBM BW Clear Sky호(2011년 건조)가 유력하게 거론
비효율 LNG선을 개조 자원으로 전환하며 FSRU-FSU 사업 비중을 지속 확대 중
현재 4척의 FSRU(필리핀·파키스탄·브라질·엘살바도르)를 운영 중
2027년 투입 목표인 요르단 FSU 프로젝트인 LNG Enugu호(2005년 건조) 개조 예정
개조 중인 LNG Benue호(BW Manzanillo FSRU)는 2027년 말 도미니카공화국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2028년용 FSU 추가 개조도 추진함
2행정 신조선 도입과 함께 노후 스티터빈·디젤전기선 매각 및 개조를 추진해 잔여 스티터빈선은 약 3척으로 축소 전망
에너지 안보 및 가스 수요 확대 속 선대 교체에 따른 노후선 공급으로 FSRU 개조 사업 가속화
튀르키예·폴란드·그리스·아일랜드·남아공 등 글로벌 FSRU 프로젝트 활발히 진행 중임
신조 부문에서는 지난 7월 인도네시아 AKR과 협력해 HD현대중공업에 170k-CBM FSRU 1척(약 320백만달러)을 발주

△ Seatrion은 Karpowership의 7번째 LNG-FSRU 개조 마친

Seatrion과 Karpowership, 8년간 진행된 개조 프로그램을 통해 7번째 FSRU인 LNGT Turkiye호 출항 기념
Seatrion은 싱가포르 Admiralty 야드에서 LNGT Africa호를 시작으로 이번 선박까지 총 7척의 LNG선을 FSRU로 개조 완료함
7척의 부유식 설비는 Karpowership 파워십 선단과 함께 4개 대륙에 연료 가스를 공급하며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 강화
개조 작업에는 복잡한 극저온 시스템, 해양 설비 및 가스 처리 시스템 통합 공정이 수반됨
Admiralty 야드가 2028년 싱가포르 당국에 반환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완공된 마지막 프로젝트임
양사는 2025년 LNG선 3척 FSRU 개조 LOI를 체결했으며, 이 중 1척은 LNGT Karadeniz 프로젝트 본계약으로 전환됨
해당 선박은 최대 600 MMscfd 용량을 갖춘 차세대 고용량 부유식 인프라로 설계됨
체결된 LOI에는 최대 6척의 차세대 파워십 통합 가능성도 포함됨
양사는 향후 차세대 파워십 및 해양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 협력 관계를 지속 확장할 계획임

▶ 가스선/암모니아운반선

△ Dorian LPG, 운임 급등에 따른 중고선이 상승세 속 5번째 VLGC 매각 단행

Dorian LPG가 호환인 운임 시장을 활용해 최고령 선박인 82k-CBM Captain John NP(2007년 HD현대중공업 건조)를 중국 측 매수자에게 매각 합의함
매각가는 암모니아 운송 능력 및 건조한 시황이 반영되어 VesselsValue 추정치(62.7백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75백만~77백만달러 수준에 매각
호르무즈 통항 차질 및 파나마 운하 지연에 따른 토마일 증가로 마·일 및 중동·일 VLGC TCE 운임은 각각 18.9만달러/일, 21.9만달러/일의 사상 최고 수준 기록 중
올해 4척의 선박(Corsair, Cobra, Constellation, Clermont)을 338.4백만달러에 매각해 257.8백만달러의 순이익을 실현하며 2분기 수익성 급증을 견인
확보 자금은 부채 상환(80.6백만달러) 및 배당에 투입되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발주한 신조 VLGC 4척(총 460백만달러, 2029~2030년 인도) 대금으로 활용될 예정
⇒ 한국에 교체 발주. 감사합니다!

△ VLGC 고가에 매각

런던 기반 Foresight Group이 노후 VLGC 1척을 고가 매각해 차익 실현 예정
매각 선박은 2009년 한국 건조 82k-CBM Vishvakarma호로 매각가는 74백만달러(평가 가치 67백만달러) 기록
2022년에 Transpetrol로부터 50백만달러에 매입한 선박이며 현재 SHV Gas와 2년 용선 계약 수행 중
SwissMarine은 2022년 KSS해운으로부터 63백만달러에 매입했던 선박으로 추정
Foresight는 12월 SwissMarine의 84k-CBM Aeolian Pearl호(2016년 건조)를 인수하며 중고선 시장 복귀
Foresight는 LPG-선으로 CO2 운송 확대를 전망하며 대형 가스선 10척 확보를 목표로 제시
미국 Dorian LPG도 호환 속 노후선 82k-CBM Captain John NP호(2007년 건조)를 중국 측에 매각 합의
매각가는 75백만~77백만달러로 평가 가치(62.7백만달러)를 크게 상회함
HD현대중공업 건조 및 암모니아 운송 가능 선박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
호르무즈 해협 차질로 수송량이 급감하며 VLGC 스왑 운임 강세 지속

△ 미국 파나마 통항료 인상조치 조사 착수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 Laura DiBella 위원장, 파나마운하청(ACP)의 통항료 인상 조치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이라 밝힘
엘니노 가뭄에 따른 수위 저하 전망으로 통항료가 향후당 5백만달러 이상으로 치솟은 상황
DiBella 위원장은 운하 수익이 파나마 GDP의 10%에 근접하며, 막대한 비용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 지적함
ACP는 최대 일일 통항 능력(36~38척) 대비 9월 3일 34척, 9월 15일 32척(파나마스 23척으로 감축)으로 통항 슬롯을 연이어 축소함
통항 제한으로 채움이 가중되며 슬롯 입찰 경쟁이 심화됨
한국 SK가스는 9월 1일 VLGC 1척 급행 통항을 위해 사상 최고액인 5.3백만달러 입찰 수수료를 지불함
FMC는 2025년 3월부터 글로벌 해상 요충지를 조사 중이나 교역 규모를 감안해 호르무즈 해협은 제외함
Panama Agencies는 고액 수수료가 주로 미국 수출용 가스선·탱커에 집중되어 자국 소비자 영향은 제한적이라 반론함
다만 8월 컨테이너 정기선사 ONE이 10.1k-TEU 선박 급행 통항을 위해 4백만달러를 지불한 사례도 확인됨

▶ 컨테이너선

▼ AP Moller-Maersk, 중국에 18.6k-TEU LNG D/F 컨테이너선 26척 신조 발주 공식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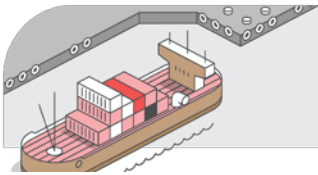
글로벌 2위 컨테이너 선사 AP Moller-Maersk가 약 5.1십억달러 규모의 18.6k-TEU LNG D/F 컨테이너선 26척 발주 공식 발표
인도 일정은 2029년 및 2030년 예정이며, 중국 Hengli Heavy Industry가 20척, New Times Shipbuilding이 6척 건조 담당
New Times Shipbuilding 건조본 6척은 지난 2월 확보했던 옵션 행사 물량
Hengli Heavy Industry와는 당초 12척 협상에서 확장 물량을 20척으로 확대. 또한 추가 12척 옵션 잔고 유지
신조선가는 New Times Shipbuilding 적당 약 193백만달러, Hengli Heavy Industry 적당 193~195백만달러 수준으로 추정
Maersk는 24k-TEU 초대형 LNG D/F선 약 12척 확보를 위해 중국 조선소 및 한국 한화오션과 추가 협상 진행 중
⇒ Hengli가 결국 몇년 후에 어떻게 될런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한화오션이 울트라막스 컨테이너선을 수주해서, 건조를 이어가기를 응원합니다.

▲ HJ중공업, 그리스 Navios로부터 10,100-teu 4척 추가 수주

HJ중공업이 전자공시한 오세아니아 선주는 그리스 선주사 Navios Maritime Holdings로 전함
2029년 4월까지 인도 예정이며, 신조선가는 122백만달러. Navios는 유럽 정기선사와의 용선 계약을 바탕 발주로 전함
이번 수주로 Navios의 HJ중공업 발주량은 총 8척으로 증가함. Navios는 2025년에도 8,850-TEU 4척(2027~2028년 인도, PIL 용선)을 HJ중공업에 기발주한 바 있음
이번 계약으로 HJ중공업의 10.1k-TEU 신조 잔고는 독일 D Oltmann Reederei 물량 4척을 포함해 총 8척으로 확대
자체 개발한 10.1k-TEU 신형은 영도조선소 도크 건조 최대 선형으로 중대형 컨테이너선 경쟁력을 공고히 함
추진 방식은 스크러버 장착 컨벤셔널 연료선으로 관측되며 고연비 설계 및 높은 냉동·냉장(reefer) 용량 확보
이번 4척 추가 전 HJ중공업의 신조 잔고는 컨테이너선 17척과 LNG 병커링선 1척 등 총 18척이었음

▷ MSC 핵심 주역 Pasquale Formisano 별세

글로벌 선사 MSC의 성장을 이끈 핵심 임원 Pasquale Formisano 선장이 별세함
1970년대 초 창립자 Gianluigi Aponte와 함께 회사를 키운 개척자로, 안토베르펜에 첫 기항한 MSC 선박에 동승함
수십 년간 해운 전문 지식과 헌신으로 전 세계 고객, 파트너, 동료들로부터 존경받음
MSC CEO Soren Toft는 그를 'MSC의 아이콘이자 업계의 전설, 진정한 친구'로 칭하며 애도를 표함
최근까지 2024년 MSC가 인수한 글로벌 3위 토크수 제공선사 Global Carriers(GCC, 구 Gram Car Carriers, 41척 보유)의 회장직을 역임함
과거 MSC의 제너럴 매니저를 지냈으며, 지난 1년간 암 투병을 이겨낸 것으로 알려짐
GCC 및 업계 관계자들은 고인의 긍정적 태도, 강력한 리더십, 비즈니스에 대한 해안을 기리며 깊은 애도를 전함



▶ 탱커

▲ 제이오션중공업, 탱커 10척 수주

Ecoprime Marine Pacific과 HJ중공업의 합작사 JE Ocean Heavy Industries가 오세아니아 선주와 LR2 4척 및 157k-DWT 수에즈막스 2척 등 탱커 6척 잠정 계약 체결
6월 잠정 계약한 114k-DWT 아프리카막스/PC선 4척을 포함해 총 10척의 잠정 수주잔고 확보
업계에서는 10척 전량을 발주한 배우의 오세아니아 선주를 싱가포르 Singfar Group으로 지목
JE Ocean은 옛 군산조선소로, HD현대가 지난 6월 Ecoprime Marine에 7,800억원(505백만달러)에 매각 본계약 체결
Ecoprime Marine은 HJ중공업의 최대 주주이기도 함
최신 설비였던 군산조선소 매각은 국내 생산능력 확장에 대한 HD현대의 소극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평가
12월 소유권 공식 이전 후 연말까지 인수 완료 및 이듬해 가동 돌입 계획, 실제 건조 착수 전 설비 현대화 투자와 인력 확보 선행 필요
2007년 건설된 군산조선소는 업황 침체로 2012년 중단 전까지 VLCC 22척 등 총 92척을 인도한 바 있음
HD현대에는 2022년 블록 제작용으로 일부 재가동했으나,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신조 건조는 미재개
⇨ 군산조선소가 제이오션으로 신조시장에 빠르게 복귀합니다. 탱커 호황 덕분입니다.
⇨ 중국 물량을 가져오는 역할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엔진은 HD현대마린엔진꺼를 사용하겠습니다.

▽ Transpetrol, 중국 Yangzijiang에 신조 발주하며 LR1 PC선 시장 첫 진입

벨기에 Transpetrol이 중국 Yangzijiang Shipbuilding에 75k-DWT LR1 PC선 2척을 발주하며 해당 시장 첫 진입
SDARI의 친환형 'Whale OT75' 설계가 적용되며, 2030년 1-2분기 인도 조건으로 선가는 비공개
올해 초 한국 HD현대상호에 발주한 암모니아 전용 VLGC 2척(총 230.7백만달러, 2028년 인도)에 이은 선대 교체용 추가 발주
현재 MR 3척과 LR2, 아프리카막스, VLGC 등을 운용 중
지난달에는 일본 건조 50k-DWT MR 2척(Luctor, Turmoil)을 적당 약 26백만달러에 매각 후 일당 16,000달러에 3년 세일앤리스백 체결

▽ Ardmore 노후 PC선 매각. 중국에서 6척 건조 중

미국 상장사 Ardmore Shipping이 선가 반등세 속에 최고령 MR PC선 1척 매각
매각 선박은 49.9k-DWT Ardmore Endeavour(2013년 구 STX조선해양 건조), 매각가는 12년 전 매입가와 동일한 약 36백만달러 수준
매수자는 미공개 상태이나 튀르키예 선주로 거론되며, 선박 가치는 VesselsValue 기준 33.6백만달러로 추정
지난 4월 자매선 Ardmore Engineer(2014년 건조, 35.5백만달러)에 이은 올해 2번째 동급 선박 매각
매각 완료 시 운항 선대는 22척으로 축소되며, 지난달 중국 Wuhu Shipyard에서 신조 옵션 2척을 행사해 총 6척의 신조 발주 잔고 보유 중

▽ 홍아해운, 중국에 발주한 화학제품 탱커에 채무보증

홍아해운, 중국 Wuchang Shipbuilding에 발주한 26k-DWT 스테인리스스틸 화학제품 탱커 3척에 대해 137백만달러(1,860억원) 규모 채무보증 제공
이번 보증 규모는 2025년 말 자기자본(2,900억원)의 71.43%에 달하며 보증 기간은 각 선박 인도일까지임
선박 인수를 위해 설립된 3개 SPC(GMF HA 26K No.1~3 SA)로 매수자 지위를 이전하고 선박 대금 및 계약 이행 의무 전액 보증
법인당 보증액은 618.8억원(적당 45.5백만달러 수준)이며 환율 1,360원/달러 적용
해당 선박들은 2028년 12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개월 간격으로 인도 예정
홍아해운은 CSSC 산하 Wuchang Shipbuilding에 확정 3척, 옵션 3척을 발주하며 10년 만에 신조 시장에 복귀함
중장기 선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로 투자 기간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됨

▲ 잠금상선(Sinokor), 오만만 운임 강세 속에 Chevron과 VLCC 1척 재용선(relet) 계약 체결

대상 선박은 Maran Tankers 소유의 319k-DWT 스크러버 장착 VLCC Maran Ajax호(2017년 건조)이며 계약액은 25.2백만달러
호르무즈 해협 외곽 선적 스크러버선의 스왑 수익이 850,000달러/일 수준에서 건조함을 입증
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의 STS 환적 허브인 오만만 특성을 활용, 호르무즈 서틀과 아시아 수송 양쪽 시장을 모두 공략 중임
Chevron은 오만만-싱가포르 항차에 작전 성악(WS 830) 대비 상승한 WS 845를 지불하기로 합의함
Maran Ajax호의 일일 TCE 수익은 블러스트 항해 반영 시 약 787,000달러/일, 벤치마크 라운드 기준 약 840,000달러/일에 달함
32일 항차 감안 시 시노코페트로케미컬은 수천만 달러 규모의 재용선 차익 실현 전망
발틱해운거래소는 오만만-중국 노선 스왑 수익을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868,000달러/일 이상으로 평가함

▶ 오프쇼어/다펜스

▽ Wison New Energies·Bumi Armada·FPSO Ventures, FLNG 사업 확대를 위해 3자 연합 구축

Wison New Energies, Bumi Armada, FPSO Ventures가 통합 임대·운영(lease-and-operate) 모델을 통한 FLNG 프로젝트 공동 추진 전략적 협약 체결함
말레이시아인 MSC 자회사인 FPSO Ventures와 Wison은 콩고 Eni의 Nguya FLNG 및 인도네시아 Genting의 Kasuri FLNG 프로젝트에서 이미 협력 중
Kasuri FLNG는 Wison이 액화 설비 건조를 맡고, FPSO Ventures와 현지 합작법인이 운영·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구조임
FLNG 밸류체인 전반의 상호 역량을 결합해 첫 가스 생산(first gas) 기간을 단축하고 비경제적 가스전의 자원 상업화 경로를 제공할 방침임
한편 Wison은 지난주 DNV로부터 해안 설비 온실가스 감축 규정인 'FLNG ABATE' 노테이션 FEED(기본설계) 승인을 세계 최초로 획득함
해당 저탄소 FLNG 솔루션은 대규모 심해 가스전 개발용으로 탄소 저감과 CAPEX 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잘 해보십시오. FLNG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더 중요함 .

▲ Tor Olav Troim 산하 Golar LNG, 사업 확장에 따라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 검토

Golar LNG가 사업 확장에 맞춰 미국 달러화 표시 선순위 무담보 채권 발행 검토 중
고정금리 투자자 미팅을 추진하도록 은행辛디케이트단에 위임 완료
선대를 기존 4기에서 최대 7기로 확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FLNG 2기 운용 중이며, 3.5-MTPA급 MkII 개조 프로젝트(3번째 설비) 진행 중
지난 8월 중국 Yantai CIMC Raffles와 2.45십억달러 규모의 4번째 MkII 개조 계약 및 옵션 1기 확보
싱가포르 Seatrrium과도 MKI·MKII 설계 기반 추가 건조를 위한 LOI 체결
향후 수년간 가속화될 FLNG 성장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평가됨
⇨ 삼성중공업과의 초대형 FLNG 신조 협의는 요즘 왜 조용해진 것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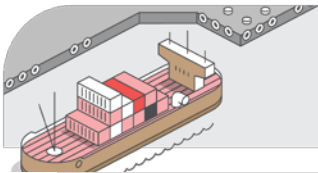
▲ Worley, 인니 Inpex Abadi LNG의 해저·파이프라인 2개 패키지 FEED 완료

호주 Worley가 인니 Inpex Abadi LNG 프로젝트 해저 설비 및 파이프라인 부문 FEED(기본설계)를 완료
Abadi 프로젝트는 연간 약 9.5MTPA 생산 목표로 FPSO 1기, 180km 수출 파이프라인, 육상 플랜트 2개 train으로 구성
완료된 FEED 범위는 150km 해저 인프라, 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CCS 파이프라인을 포함
인니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Inpex는 2027년 중반 최종투자결정(FID)을 목표로 설정
Inpex는 2027년 상반기까지 4개 EPC 계약 입찰을 진행할 예정
SURF/SPS 패키지는 McDermott·Baker Hughes 및 OneSubsea-Subsea7 컨소시엄이 경쟁 중임
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입찰에는 이탈리아 Saipem과 스위스 Allseas가 참여 중
⇨ 2027년 수주 파이프라인입니다. KF-21과 함께 FPSO도 한국이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 Woodside Energy, BP의 호주 Browse 프로젝트 지분 매각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검토

35십억달러 규모 호주 Browse 프로젝트 운영사 Woodside Energy가 BP의 5% 지분 매각에 대해 우선매수권(Pre-emption) 행사 검토 착수
BP는 해당 지분을 일본 Osaka Gas 및 Jorgmec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으나 재무 조건은 미공개
규제 당국 및 JV 승인이 필수 전제 조건이며, 표준 거버넌스 절차에 따라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
지난 6월에도 PetroChina 지분 10.67%의 일본 Inpex 매각 추진 건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차단한 바 있음
Browse 프로젝트는 3개 가스전(Brecknock, Calliance, Torosa)을 개발해 NWS 시설로 공급하는 호주 최대 미개발 자산임. 가스 14Tcf, 콘덴세이트 약 390백만 배럴 보유
고원 생산 기준 연간 약 11MTPA의 LNG-LPG 및 내수용 가스 생산을 목표로 FEED 진입 및 인허가 절차 진행 중
Rystad Energy는 Jorgmec의 참여로 리스크 분담이 가능해져 FEED 진입을 향한 시장 신뢰가 강화되었다고 평가
⇨ 여기 FPSO 2기가 중요하니까 현대와 삼성 등 3파전입니다.

[08월4주] ▲ 호주 Browse 메가프로젝트, 초대형 FPSO 2기 수주전 본격화



△ TotalEnergies는 나이지리아 Ima 가스 프로젝트 FID

TotalEnergies와 Amni International, 나이지리아 해상 Ima 가스 프로젝트 최종투자결정(FID) 확정
OML 112-117 광구 대상이며 22km 파이프라인 및 해상 플랫폼 통해 Bonny Island 소재 Nigeria LNG 설비로 공급 예정
가스전 매장량은 약 1.4조 입방피트 수준이며 2028년 가동 및 플레토 생산량 350 MMscfd 전망
본격 가동 시 NLNG Train 7(22→30 MTPA 확장) 공급 가스의 약 3분의 1 담당 예정
간소화 플랫폼·육상 전력·플래어링 제거·메탄 모니터링 적용한 저비용·저탄소 개발 모델 채택
핵심 계약업체 전량 현지 기업 구성 및 개발 인력 약 60% 지역사회 조달
2027년 가동 예정인 Ubeta 프로젝트에 이은 나이지리아 통합 가스 전략의 핵심 이정표로 평가

△ Eni는 인도네시아 Kutei 탐사 등으로 동남아 투자확대

Eni, 인도네시아 Kutei 분지 신규 해상 탐사 광구 확보하며 동남아 가스 입지 강화함
동칼리만탄 심해(수심 1,000~2,500m) Sapukala 광구 지분 100% 확보 및 3D 탐사 완료로 시추 평가 가속화
이번 낙찰로 North Hub 개발이 진행 중인 Kutei 분지 내 Eni 지배력 공고화
Geng North, Gehem 등은 Eni-Petronas 합작사 Searah의 관리 자산임
14조 입방피트 가스와 800백만 배럴 콘덴세이트 추정 물량은 Bontang LNG 원료로 공급 예정
Searah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전역 19개 생산·개발 자산 지분 보유
합작사는 2028년까지 500k boepd 이상 생산을 목표로 하며, 가스 및 LNG 중심 포트폴리오로 구성될 전망

▶ 기사

▲ HD현대중공업, CLdN으로부터 RoRo 2척 수주

록셈부르크 선사 CLdN은 HD한국조선해양(HD현대중공업 울산 건조)에 로로선 2척 발주
2029년 하반기 인도 예정이며, 계약 금액은 총 3,362억원(247백만달러). 신조선가는 123.5백만달러
CLdN의 한국 조선선 15·16번째 발주이자 4년 만의 로로선 신조 투자
추진 방식은 LNG D/F, 전기 모터, 배터리 시스템 탑재를 통한 항만 무탄소 운항 가능성 유력
CLdN은 2022년 HD현대미포 로로선 2척(2025년 인도) 및 2024년 컨테이너선 6척(2027년 인도) 발주 등 화물 분산 전략 추진 중
HD한국조선해양은 2026년 누적 169척, 18.71십억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의 80.3% 달성함

▲ PCTC 슈퍼사이클에, WW 적극 대응

자동차운반선(PCTC) 시장이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하며 노르웨이 Wallenius Wilhelmsen이 적극 대응 중임
Lasse Kristoffersen CEO는 현 중국 자동차 수출 폭증세가 2000년대 초반 벌커·탱커 호황기와 유사하다고 진단
전 세계 생산 비중 30% 이상으로 급증한 중국의 올해 잠재 자동차 수출 규모는 10m대를 상회할 전망
BYD는 수출 목표를 올해 1.9m대에서 내년 2.5m대로 확대했고, SAIC는 연간 목표 1m대를 8월에 조기 달성
대규모 신조선 인도에도 극심한 선박 부족으로 최대 4m대의 차량이 컨테이너선이나 벌커 갑판에 결속되어 운송되는 실정
Wallenius Wilhelmsen은 단기 계약 만료 및 아시아-유럽 스태트 운임 급등(170달러/cbm)에 힘입어 2027년 가용 선박 40%에 대한 강력한 협상 주도권 확보
2027년 가용 선박은 장기 파트너십이 가능한 핵심 화주를 선별 배정 중이며 화주들의 고운임 지불 의향도 확인
한·일과 달리 자유 경쟁인 중국 시장은 기존 계약 물량 집중으로 잔여 선박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양상임

▲ 이란의 블랙리스트 지정에도 호르무즈 해협 지속 통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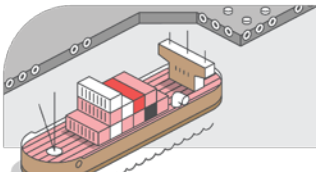
Windward에 따르면 이란의 걸프만 원유 수출선 블랙리스트 지정 조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함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 제재 선박 77척 모두 통행료 지불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속 통항 중임
제재 선박의 85%는 탱커이며 국적별로는 UAE(40%), 그리스(12%), 한국(9%) 순임
7월 호르무즈 원유 수송량의 40%를 담당했던 시노코(Sinokor)는 최소 8척이 블랙리스트에 등재됨
대다수 선박은 대이란 통행료 지불 시 보험 인수를 금지하는 International Group P&I 보험에 가입된 상태임
제재 명단에는 통항 이력이 없는 Klaveness 겸용선 Banastar호나 이미 미군에 격침된 아프라막스 Riesco호가 포함되는 등 식별 오류도 다수 확인됨

▲ 오만만 내 STS(선박 간 환적) 구역 포화로 원유 탱커 대기 정체 심화

이란의 안부 송유관 폭격 후 사우디 원유가 우회되며 호르무즈 외곽 혼잡 가중
걸프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서를 운송 후 STS 시설에서 수출선으로 환적하는 방식 활용
호르무즈 통과 사우디 원유는 8월 0.9m bpd에서 9월 3.6m bpd로 급증 전망되며 최대 40척의 VLCC 추가 필요
반면 약 20척의 VLCC는 안부 수출 재개를 기다리며 지중해에 대기 중. 호르무즈 서쪽 선적 원유의 STS 물량은 하루 약 6m bpd(일일 약 3방의 VLCC) 유지 중
STS 대기열 확대로 작업 소요 기간이 5~7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증가
정체 악화로 중국 바이어들은 인도 서안이나 말레이시아 해상 등 대체 환적지 요청
사우디 Bahri 소유 VLCC Gold Shine호(310k-DWT)는 사우디 원유를 싣고 중국으로 운항
S-O일은 인도 바디나르 해상 STS 작업을 위해 VLCC 2척을 용선함
말레이시아 랑기 허브 해상에서도 원유 환적 활동 추가 증가 추세

▶ 아시아 연휴에 벌크 운임 급락

아시아 연휴(한국 추석, 중국 중추절)를 앞두고 용선 시장이 한산해진 가운데 케이프사이즈 평균 스태트 운임 급락 및 운임 파생상품(FFA) 시장 대규모 투매세 발생
Baltic Exchange 기준 182k-DWT 5개 항로 바스켓 운임은 1,407달러 하락한 52,457달러/일을 기록하며 월요일 대비 하락 마감
FFA 시장의 낙폭이 두드러져 10월물 호가는 목요일 증가 대비 6,085달러 급락한 45,500달러/일, 11월물은 43,750달러/일로 하락하며 4분기 선물 곡선 상승세 둔화
파생상품 트레이더는 실물 지리적 약화와 금요일 및 연휴 일정이 겹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함
유럽발 대서양 왕복 항차는 1,312달러 하락했으나 62,938달러/일로 작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임
태평양 수역은 호주 광산 기업 성약으로 가동은 유지되었으나 가용 선박 공급 과잉으로 운임 상승이 제약됨
반면 북대서양 수역은 유럽 대륙발 선박 공급 부족으로 강세를 보여 지브롤터/함부르크발 왕복 항차는 24,690달러/일, 중·일행 항차는 52,867달러/일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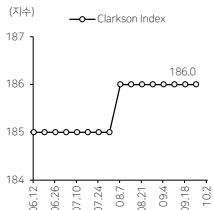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9.27 [8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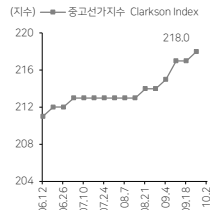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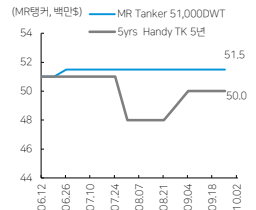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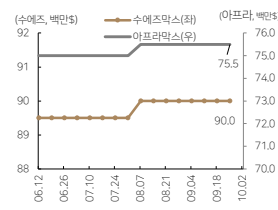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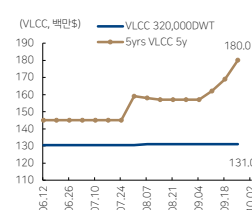
▶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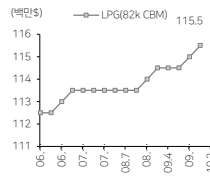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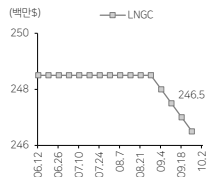
▶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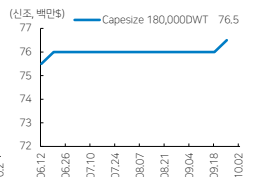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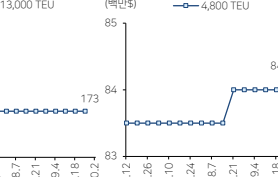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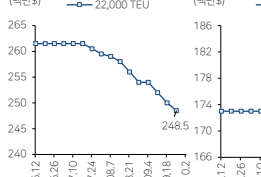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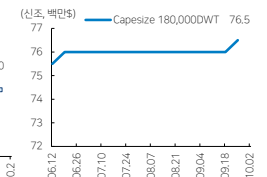
▶ 가스선들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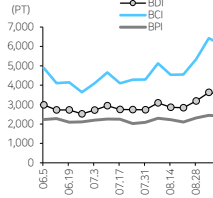


▶ 벌크



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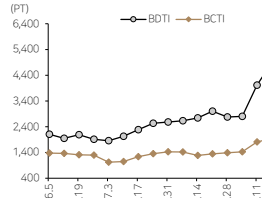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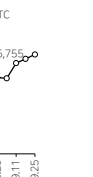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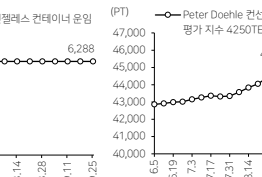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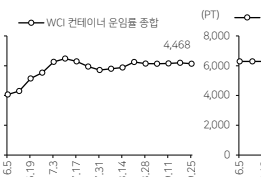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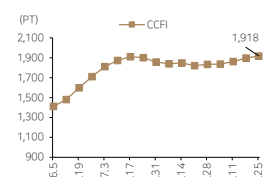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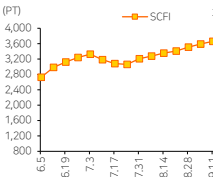
▶ 중국



▶ 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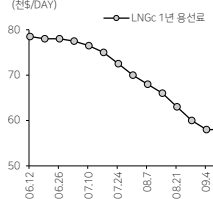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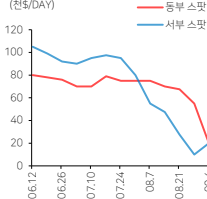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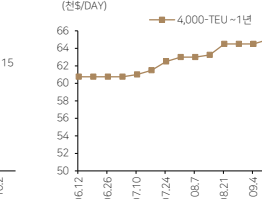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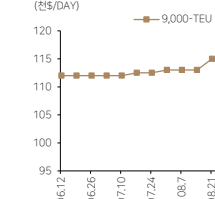
▶ LNG선 용선료(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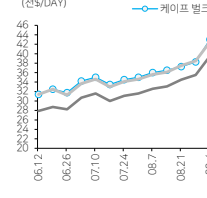
▶ LNG선 SPOT 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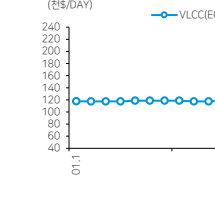
▶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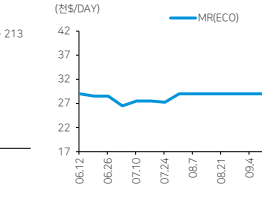
▶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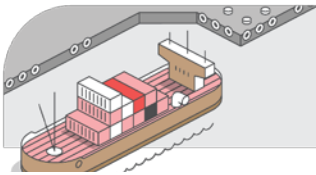


▶ 탱커 - VLCC



▶ 탱커 - MR탱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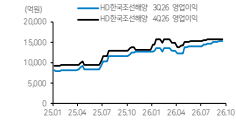
다올 선박

2026.09.27 [8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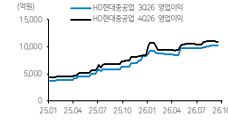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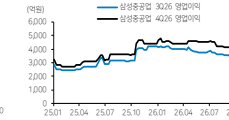
▶ HD한국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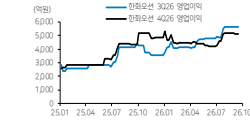
▶ HD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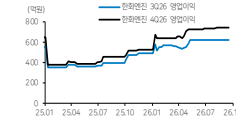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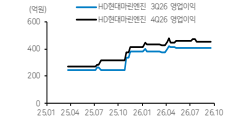
▶ 한화오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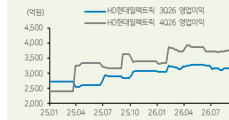
▶ 한화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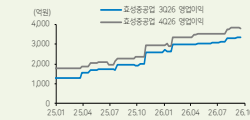
▶ HD현대마린엔진



▶ HD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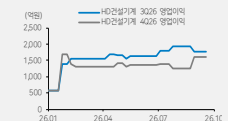
▶ 효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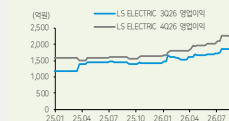
▶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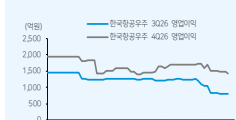
▶ HD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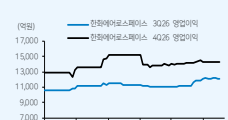
▶ LS Elec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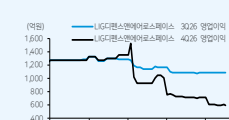
▶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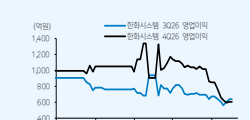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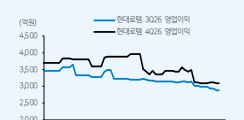
▶ LIG넥스원



▶ 한화시스템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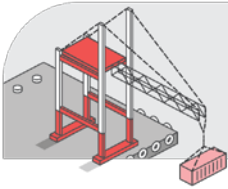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26 EPS(원)										:Chang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8.28	26.09.04	26.09.11	26.09.18	26.09.23	26.09.23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26 PER	증가
조선	HD한국조선해양	46,907	49,153	49,210	50,230	55,370	55,370	55,375	55,425	55,425	55,425	10%	0%	6.0	332,500
	HD현대중공업	25,609	28,340	28,949	29,581	30,839	30,839	30,763	30,687	30,687	30,687	4%	0%	14.4	441,000
	삼성중공업	1,407	1,211	1,209	1,145	1,063	1,063	1,063	1,047	1,047	1,047	-9%	-2%	19.3	20,250
	한화오션	4,414	4,972	5,048	5,372	6,425	6,425	6,422	6,428	6,453	6,453	20%	0%	12.3	79,600
엔진	한화엔진	2,066	2,315	2,306	2,511	2,493	2,493	2,493	2,493	2,493	2,493	-1%	0%	19.1	47,600
	STX엔진	2,070	2,042	2,019	2,030	2,108	2,108	2,108	2,108	2,108	2,108	4%	0%	10.4	21,950
	HD현대마린엔진	4,062	4,255	4,255	3,730	3,811	3,811	3,811	3,811	3,811	3,811	2%	0%	12.9	49,000
건설/중전기	HD건설기계	9,008	10,764	10,792	11,995	12,291	12,715	12,715	12,715	12,715	12,715	15%	3%	10.2	129,700
	두산발켓	5,363	5,521	5,362	5,767	5,868	5,998	5,998	5,998	5,998	5,998	4%	2%	9.6	57,700
	HD현대일렉트릭	27,105	27,194	27,149	26,966	26,440	26,440	26,453	26,453	26,453	26,453	-2%	0%	26.8	708,000
	효성중공업	84,943	84,548	84,581	82,787	83,816	83,816	84,222	84,222	84,107	84,107	2%	0%	34.4	2,896,000
방산/기타	LS ELECTRIC	3,012	3,317	3,377	3,608	3,588	3,588	3,605	3,605	3,605	3,605	0%	0%	57.0	205,500
	한국항공우주	3,747	3,564	3,517	3,302	2,475	2,475	2,475	2,443	2,395	2,395	-27%	-1%	53.2	127,50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4,871	40,829	41,533	42,222	44,794	45,097	45,005	45,048	45,048	45,048	7%	1%	22.7	1,021,000
	LIG디펜스엔지니어링	16,757	16,586	16,495	16,865	16,440	16,469	16,469	16,520	16,510	16,510	-2%	0%	41.9	692,000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1,481	1,295	1,192	1,047	737	736	736	744	744	744	-29%	1%	99.3	73,900
	현대로템	8,620	8,405	8,546	8,668	8,202	8,203	8,202	8,152	8,152	8,152	-6%	-1%	14.2	115,900
	현대엘리베이터	5,129	5,129	5,129	4,221	4,221	4,221	4,221	4,221	4,221	4,221	0%	0%	17.5	73,700
	성광벤드	1,653	1,767	1,767	1,544	1,539	1,539	1,539	1,555	1,555	1,555	1%	1%	19.7	30,700
피팅	태광	2,170	2,044	2,067	2,000	3,172	3,172	3,172	3,653	3,653	3,653	83%	15%	7.2	26,400
	하이북코리아	4,334	4,209	4,320	4,754	4,920	4,920	4,920	4,920	4,920	4,920	3%	0%	7.7	37,700

그룹	종목	2026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26.08.28	26.09.04	26.09.11	26.09.18	26.09.23	26.09.23	2026	2027	2026 PBR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19,238	224,270	224,388	230,472	219,913	219,913	219,921	219,921	219,921	219,921	25%	27%	1.5	
	HD현대중공업	101,712	114,973	114,507	115,076	110,122	110,122	110,541	110,170	110,170	110,170	28%	29%	4.0	
	삼성중공업	6,595	6,042	6,039	6,038	5,997	5,997	5,997	6,000	6,000	6,000	17%	24%	3.4	
	한화오션	24,134	25,013	25,091	25,563	26,902	26,902	26,899	26,915	26,915	26,915	24%	21%	3.0	
엔진	한화엔진	6,344	9,112	9,112	9,172	9,074	9,074	9,074	8,992	8,992	8,992	28%	22%	5.3	
	STX엔진	10,668	10,613	10,552	10,573	10,651	10,651	10,651	10,651	10,651	10,651	20%	20%	3.1	
	HD현대마린엔진	18,171	18,843	18,843	18,150	14,392	14,392	14,392	14,392	14,392	14,392	26%	32%	3.4	
건설/중전기	HD건설기계	94,711	89,608	101,167	112,356	113,242	101,663	101,663	101,663	101,663	101,663	13%	13%	1.3	
	두산발켓	78,068	80,333	80,424	80,635	81,048	80,533	80,533	80,533	80,533	80,533	7%	8%	0.7	
	HD현대일렉트릭	12,733	12,722	12,747	12,757	12,953	12,953	12,953	12,962	12,962	12,962	4%	7%	6.3	
	효성중공업	76,558	75,901	75,857	75,631	74,763	74,763	75,178	75,178	75,178	75,178	35%	38%	9.4	
방산/기타	LS ELECTRIC	329,629	329,534	329,785	370,181	328,316	328,316	329,497	329,497	329,497	329,497	26%	32%	8.8	
	한국항공우주	16,123	16,575	16,621	16,639	16,635	16,635	16,668	16,668	16,668	16,668	22%	28%	12.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2,119	21,835	21,831	21,637	20,920	20,920	20,920	20,928	20,927	20,927	11%	18%	6.1	
	LIG디펜스엔지니어링	229,898	223,620	224,388	227,085	231,483	231,804	231,804	233,465	233,465	233,465	19%	21%	4.4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74,804	74,957	74,754	76,494	77,494	77,674	77,674	77,598	77,598	77,598	21%	26%	8.9	
	현대로템	18,067	29,743	29,584	29,657	29,295	29,406	29,406	29,078	29,078	29,078	3%	7%	2.5	
	현대엘리베이터	35,965	35,994	36,118	36,280	35,627	35,624	35,624	35,584	35,584	35,584	23%	24%	3.3	
	성광벤드	28,500	28,500	28,500	35,452	35,452	35,452	35,452	35,452	35,452	35,452	12%	11%	2.1	
피팅	태광	21,881	21,927	21,877	21,865	21,778	21,778	21,778	21,766	21,766	21,766	7%	9%	1.4	
	하이북코리아	26,622	26,380	26,232	26,269	27,413	27,413	27,413	27,888	27,888	27,888	13%	12%	0.9	
	하이북코리아	41,553	41,553	41,973	41,973	42,224	42,224	42,224	42,224	42,224	42,224	12%	12%	0.9	

출처: Dataguide



다올 기계 ChartBook

2026.09.27 [8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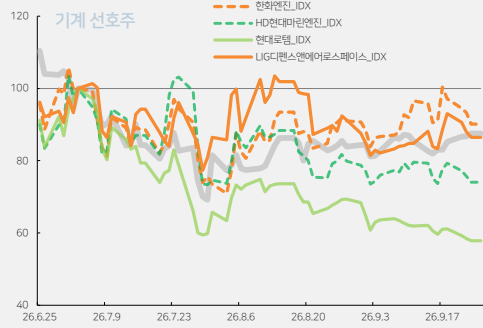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선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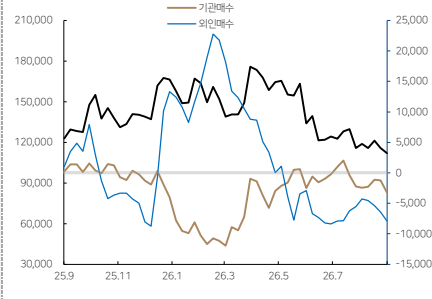
INDEX (12주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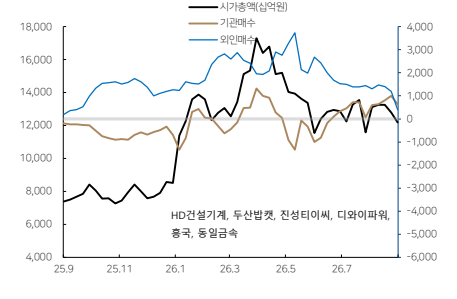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기관, 외국인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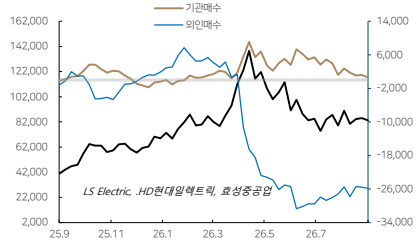
조선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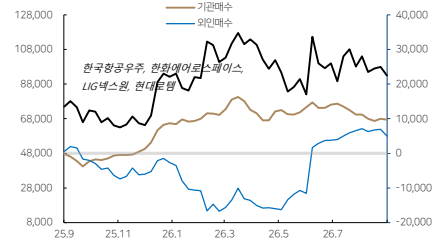
건설기계 메이커2사 + 부품4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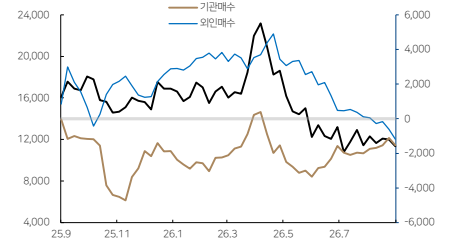
중전기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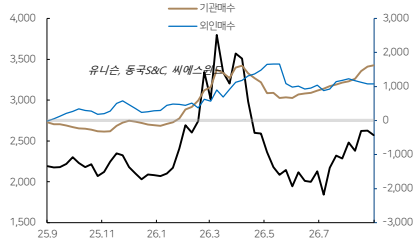
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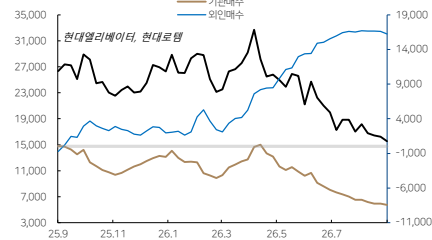
조선기자재 2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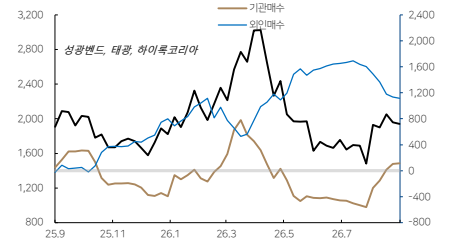
풍력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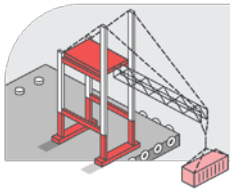


경협



피팅3사





다올 기계 ChartBook

2026.09.27 [841호]

DAOL 다올투자증권

조선 기계 방산 최광식 gs.choie@daolfn.com

글로벌 피어그룹 주가 흐름

대분류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인프라: 건설기계 / 부품							
건설기계	HD건설기계	4,537	-7.2%	-6.5%	-5.4%	37%	78%
	두산밥캣	4,074	-2.2%	-7.2%	-10.0%	6%	13%
	CATERPILLAR	377,660	1.6%	0.0%	-16.7%	76%	201%
	KOMATSU	45,212	9.0%	2.7%	17.7%	44%	89%
	HITACHI CM	7,862	1.5%	-1.7%	6.3%	20%	26%
	VOLVO	66,725	-2.3%	-7.4%	1.1%	18%	44%
중국	SANY	23,237	-3.9%	-8.8%	-6.4%	-23%	8%
	XCMG	12,508	-3.8%	-10.4%	-20.2%	-32%	13%
소형	DEERE	186,166	0.9%	8.8%	17.2%	49%	83%
	CNH	16,202	-2.7%	12.7%	25.1%	20%	8%
	TAKEUCHI	2,275	0.3%	-3.6%	-2.1%	38%	49%
	TEREX	6,553	-2.9%	-12.3%	-14.2%	11%	-1%
	SUMITOMO HI	4,657	-0.4%	2.0%	7.2%	68%	57%
	SANDVIK	47,838	2.2%	-4.2%	-7.1%	45%	88%
건설기계 부품	UNITED RENTALS	65,172	3.3%	-1.0%	-2.8%	11%	136%
	디와이퍼워	90	-0.9%	-4.7%	-3.6%	-10%	-16%
	전성티이시	194	-2.0%	-8.2%	-15.8%	-4%	9%
	우림기계	86	-2.3%	0.1%	-0.7%	72%	32%
	홍국	45	-0.6%	-3.3%	-2.8%	5%	-16%
	동일금속	49	-2.3%	-0.4%	-1.7%	-9%	-27%
방산	KUBOTA	20,151	1.2%	-0.4%	-2.3%	46%	26%
	가야바	1,218	-0.7%	0.2%	19.5%	17%	95%
	Hengli	18,435	0.1%	-5.0%	-21.7%	3%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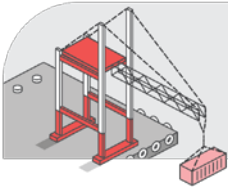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방위산업 / 항공부품							
방산/항공	한국항공우주	9,153	-1.8%	-3.0%	-11.7%	19%	16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8,774	-5.3%	-6.2%	-8.8%	-2%	858%
	UG디펜스엔지니어링	11,213	-7.0%	-1.8%	-19.7%	41%	687%
	한화시스템	10,282	-7.6%	1.1%	-19.0%	28%	502%
	아스트	189	3.7%	20.6%	11.7%	17%	-78%
	퍼스텍	226	-1.4%	5.7%	-11.8%	44%	95%
방산/항공	하이즈항공	29	1.5%	4.4%	6.7%	-11%	-32%
	오르비텍	139	-1.8%	18.5%	-12.1%	64%	39%
방산/항공	Boeing	156,549	-0.1%	-6.6%	-11.1%	-10%	3%
	Airbus	173,654	-0.5%	-6.5%	1.6%	-2%	52%
방산	LOCKHEED MARTIN	119,910	-2.6%	-8.1%	1.7%	7%	27%
	Raytheon Technologies	255,265	-2.4%	-10.7%	2.0%	16%	163%
	Northrop grumman	72,526	-3.2%	-7.2%	-2.1%	-14%	16%
	GENERAL DYNAMICS	91,102	-4.6%	-11.9%	-3.8%	2%	52%
항공	BOMBARDIER	22,864	4.8%	-2.5%	6.9%	65%	553%
	EMBRAER	14,556	4.7%	4.5%	29.5%	30%	473%
항공 부품	ROLLS ROYCE	162,888	2.2%	-4.0%	5.2%	25%	571%
	SAFRAN	160,273	4.1%	-4.0%	2.1%	14%	126%
	SPIRIT AERO	#N/A N/A	0.0%	0.0%	0.0%	0%	145%
	TRIUMPH	#N/A N/A	0.0%	0.0%	0.0%	0%	240%
	MHI	83,628	0.5%	-0.6%	-0.5%	1%	367%
	KHI	13,432	0.1%	-6.5%	-24.5%	24%	233%
	FHI	12,137	1.0%	1.3%	9.0%	-15%	-8%
	IHI	19,264	-1.9%	6.0%	-0.7%	12%	524%

대분류	티커 / 회사명	시총(백만\$)	1W	1M	3M	3M 주가	1Y	3Y
에너지: 피팅 / 발전 / 중전기 / 풍력								
풍력	씨에스윈드	1,556	-2.5%	0.2%	17.7%		17%	-8%
	SK오션플랜트	523	-4.7%	15.5%	29.4%		-53%	-38%
	세진중공업	417	-3.9%	-7.0%	34.8%		-50%	93%
	유니슨	277	0.4%	24.3%	29.1%		14%	12%
	동국S&C	61	-1.5%	3.9%	1.7%		-39%	-50%
	태웅	561	1.2%	16.7%	1.1%		23%	104%
	VESTAS	30,116	-4.1%	-4.5%	8.6%		65%	31%
	GOLDWIND	10,050	-1.6%	-3.8%	-20.4%		25%	94%
	NORDEX	10,697	0.8%	3.4%	-16.5%		84%	242%

중전기	LS Electric	22,703	-2.8%	2.0%	-20.8%	276%	1000%
	효성중공업	19,888	-0.7%	4.1%	-24.7%	118%	1604%
	HD현대일렉트릭	18,797	-2.3%	-2.9%	-34.7%	24%	963%
	ABB	176,461	0.2%	0.6%	-7.9%	41%	144%
	Schneider	191,812	1.8%	-2.7%	0.6%	24%	85%
	WEG	41,222	-1.4%	1.3%	13.1%	41%	41%
	Crompton Greeves	1,469	-3.8%	-8.2%	-20.6%	-25%	-29%
	TBEA	13,247	-2.9%	-8.6%	-24.5%	9%	19%
피팅	성광밴드	600	-4.4%	3.7%	-1.3%	-3%	109%
	태광	503	1.3%	6.7%	-9.1%	8%	47%
	하이록코리아	327	2.4%	13.9%	10.6%	13%	38%
발전	두산에너지빌리티	38,544	-3.8%	-5.2%	-15.5%	29%	397%
	비메이지아이	1,365	-6.8%	-7.3%	-2.4%	24%	627%
	S&TC	559	0.0%	6.5%	10.5%	-30%	415%
	DONGFANG	11,623	-3.8%	-8.8%	-27.8%	24%	50%
	BHEL	15,238	-3.4%	1.0%	1.3%	82%	220%
	MHI	83,628	0.5%	-0.6%	-0.5%	1%	367%
	IHI	19,264	-1.9%	6.0%	-0.7%	12%	524%
	SIEMENS	249,528	5.9%	-2.6%	1.8%	23%	107%
발전	General Electric	339,376	4.1%	-7.7%	-8.5%	11%	271%
	ALSTOM	7,665	-4.8%	-14.0%	-10.4%	-34%	-32%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터 = 경합								
철도	현대로템	9,316	-5.4%	-15.5%	-44.4%		-45%	318%
	ALSTOM	7,665	-4.8%	-14.0%	-10.4%		-34%	-32%
	Bombardier	22,864	4.8%	-2.5%	6.9%		65%	553%
	CNR	73,083	2.5%	-3.4%	7.0%		32%	16%
	CAF	3,015	-0.1%	8.9%	23.5%		50%	161%
	CSR	24,509	0.6%	-2.1%	-1.3%		-11%	37%
승강기	현대엘리베이터	2,122	0.5%	-2.5%	-4.3%		-8%	68%
	KONE	31,059	2.4%	-2.6%	5.0%		-11%	29%
	THYSENKRUPP	10,914	0.6%	7.1%	46.4%		72%	181%
	MITSUBISHI ELEC.	70,422	2.2%	-6.8%	-13.4%		37%	183%
	HITACHI	159,715	0.2%	4.3%	16.2%		41%	198%
	SHANGHAI ELEC.	13,406	-4.1%	-2.4%	-24.2%		-25%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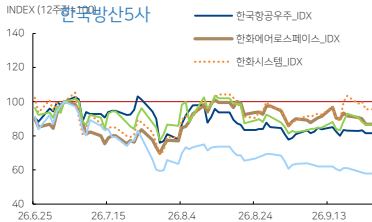
공작기계 / 기타								
공작기계	화천기계	60	-5.7%	2.9%	17.7%	15%	13%	
	와이지원	333	-8.7%	18.0%	46.3%	139%	107%	
기타	S&T중공업	638	-7.5%	16.1%	36.3%	-64%	131%	
	Amada	5,056	3.8%	-2.6%	18.5%	35%	66%	
	Moriseiki	2,936	4.0%	-3.2%	21.0%	-2%	15%	
	Jtekt	4,308	2.0%	3.3%	3.3%	39%	51%	
	Okuma	2,003	4.2%	-4.9%	2.3%	34%	42%	
	Makino	2,494	3.7%	2.7%	8.2%	37%	141%	
	Gildemeister	4,265	-0.4%	0.2%	1.1%	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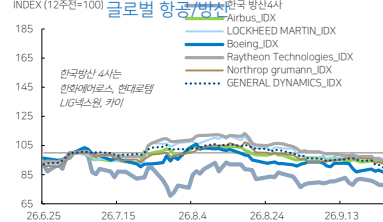
방위산업과 항공부품주

방위산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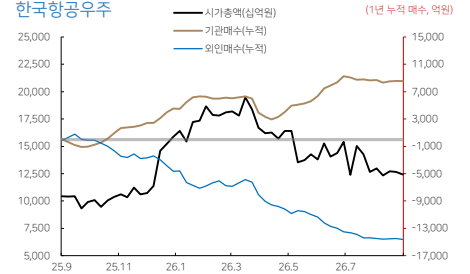
▶ 한국의 방산 3사+한화시스템+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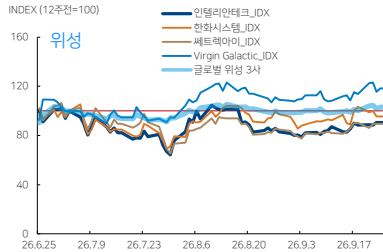
▶ 글로벌 방산/항공



▶ 한국항공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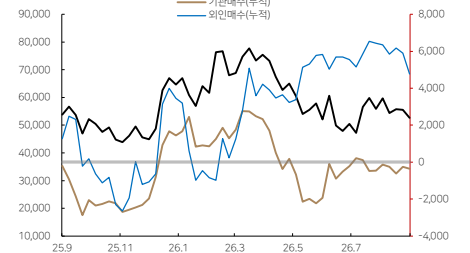
▶ 한국과 해외 위성 피어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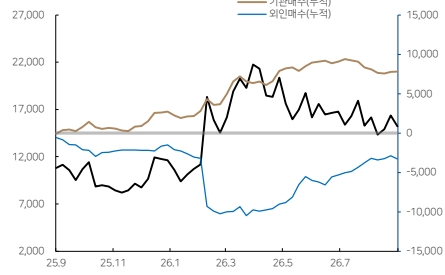
▶ 항공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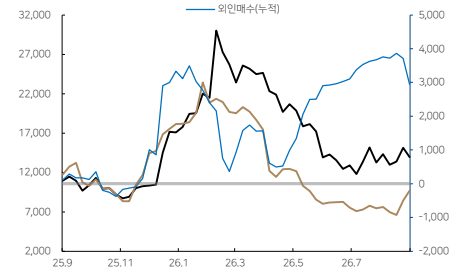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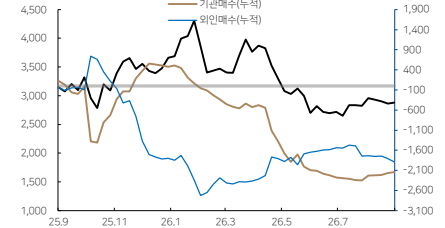
▶ L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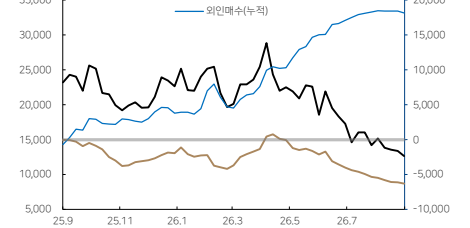
▶ 한화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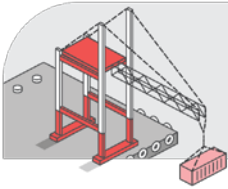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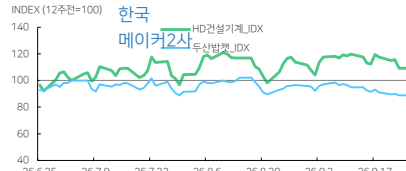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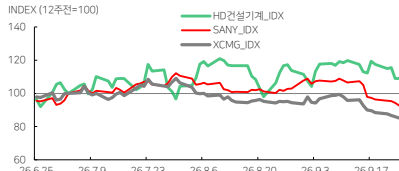


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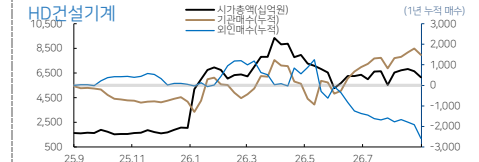
▶ 한국의 메이커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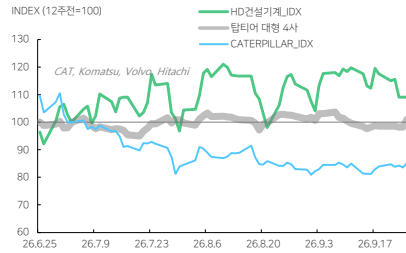
▶ 중국 건설장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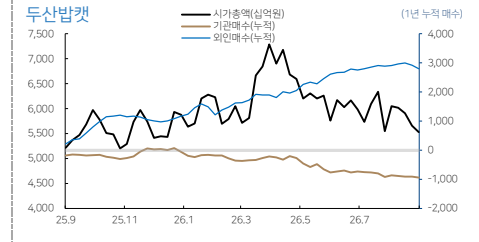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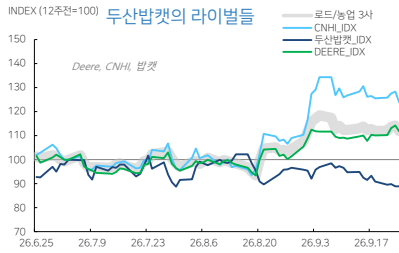
건설기계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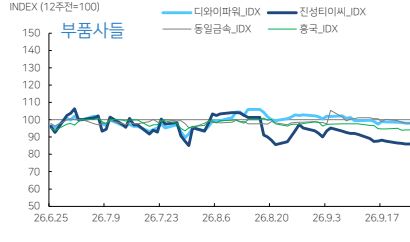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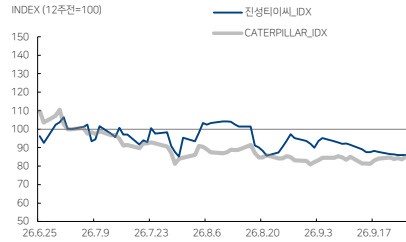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건기, CAT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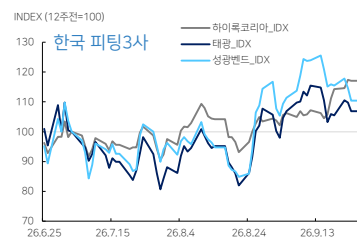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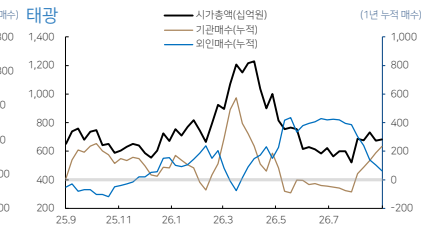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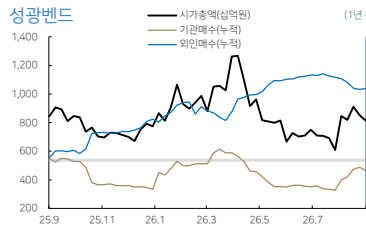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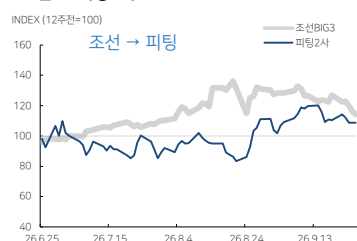
▶ 피팅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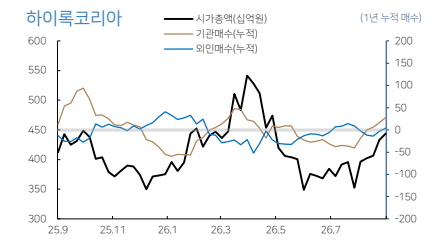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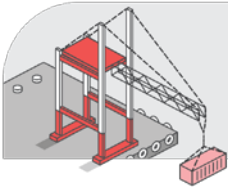


▶ 조선 → 피팅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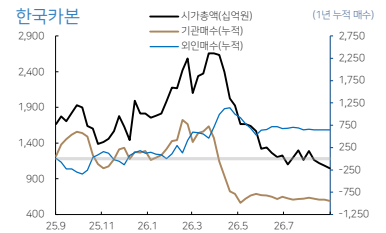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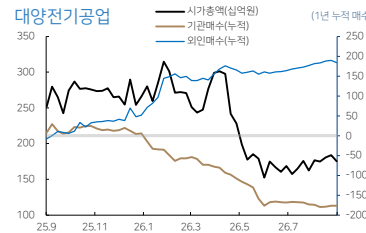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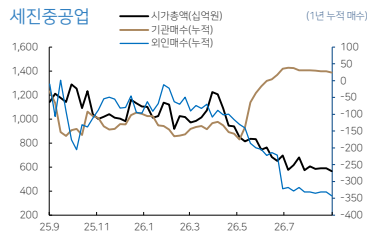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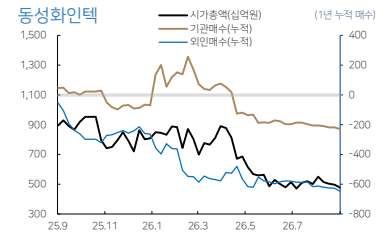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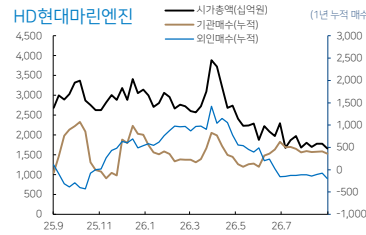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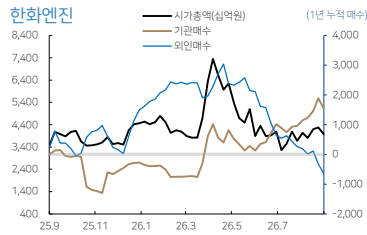


▶ 건설 → 피팅2사





조선기자재 수급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당사의 투자자의견 중 BUY는 "매수", HOLD는 "중립", SELL는 "매도"에 해당.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

▶ 투자등급 비율

BUY : 93.5% HOLD : 6.5% SELL : 0.0%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자의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